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155-10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 E20-2024-03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4.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사업: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현우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진 연구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농어촌 주민 정주 여건 파악을 위해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650명 대상 온라인 및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만족도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인식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했다. 또한 주민 특성 및 거주 지역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연구 결과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부 항목 대부분에서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전반적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6.4점)이 도시 지역(6.2점)보다 높고, 두 지역 모두 전년과 동일한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 관련 항목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0.1점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웰빙' 측면에서 긍정적 정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도시 지역 주민 대비 부정적 정서 개선 수준도 우세했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농어촌 지역(5.9점)이 도시

지역(5.3점)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에 있어서는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의 전체 평균 점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전년도 대비 변화가 발생했다. 농어촌 지역(5.5점)이 도시 지역(6.3점)보다 0.8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도·농 간 격차인 0.7점(도시 6.3점, 농어촌 5.5점)보다 0.1점 더 벌어진 수치이다.

4대 전략 중에서 보건·복지 전략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변화가 있었지만,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1.4점으로 차이가 가장 컸다. 교육·문화 전략은 전년도 도·농 간 격차가 0.6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하여 커졌으며,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각각 0.9점에서 0.5점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반면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는 도시 지역의 경우 전년도보다 0.2점 증가하였지만,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0.4점 낮게 나타나 도시 지역과 0.4점의 격차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략 중에서 보건·복지 전략은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2.1점(도시 6.6점, 농어촌 4.5점)으로 가장 컸다. 교육·문화 전략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각각 1.3점으로 전년도 대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고, '방과 후 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 격차 또한 1.1점으로 크게 조사되었다.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의 만족도 격차가 1.6점(도시 7.2점, 농어촌 5.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식자재 구입' 항목에서도 만족도 격차가 1.5점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건에 대한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결과와 달리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0.4점(도시 5.2점, 농어촌 4.8점) 더 낮았다.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일자리 지원', '일자리 용이성' 항목에서 전체 평균 점수 격차(0.4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전략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 ‘필요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여건’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IPA 분석 결과,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중요도 7.2점)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6.8점에 그쳐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에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34.7%, 도시 지역 주민의 59.8%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직장이나 일자리(34.0%)’이고, 도시 주민은 ‘주택 문제(28.3%)’를 주요 사유로 꼽았다.

농어촌 주민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정주기반을 제외한 전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경제·일자리 전략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고(3.8점), 일자리를 구하는 것(3.9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보건·복지 전략과 교육·문화 전략에서 70대 이상 남성의 만족도가 저조했고, 정주기반 전략의 경우 40대 여성이, 경제·일자리 전략은 70대 이상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 읍·면 지역 간 차이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간 차이보다 작았다. 읍·면 간 격차 역시 도·농 간 격차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전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항목에서 읍·면 간 격차가 각각 1.1점으로, 면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ural Life Quality Status and Resident Settlement Satisfaction

Purpose of Research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as a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 for the Quality of Life Improvement Committee, based on Article 46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Promoting Rural Development,’ conducts necessary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This study assessed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rural residents to understand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fishermen.

Research Methodology

To assess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residents, this study conducted online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3,650 adults aged 19 and over residing in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The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liv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four strategic areas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settlement infrastructure, and economy and employment) outlined in the 4th Basic Plan for Quality of Life.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ssessed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dditionally, the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investigation of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through analysis based on resident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 locations.

Key Findings

General Life Satisfaction: Rural residents reported higher overall life satisfaction (6.4 points) compared to urban residents (6.2 points), with both regions maintaining consistent ratings from the previous year. Rural inhabitants demonstrated more positive evaluations across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overall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community relationships.

Four Strategic Areas Assessment: The urban-rural disparity in the four strategic areas of the 4th Basic Plan widened to 0.8 points (urban: 6.3, rural: 5.5), representing a 0.1 poi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health and welfare domain showed the most pronounced difference (1.4 points), with obstetric medical services displaying the largest gap (2.1 points). For education and cultural services, the urban-rural gap expanded from 0.6 to 1.0 points, while settlement infrastructure improved with decreasing disparities from 0.9 to 0.5 points. A new 0.4-point gap emerged in economic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Both urban and rural residents identified healthcare services and safe settlement infrastructure as critical priorities for quality of life enhancement.

Relocation Intentions: Rural residents (34.7%) expressed significantly lower intention to relocate than urban residents (59.8%), with rural residents primarily citing workplace or employment opportunities (34.0%) as motivation, while urban residents mentioned housing issues (28.3%) as their main concern.

Demographic and Geographic Variations: Residents in their 70s and above reported the lowest contentment across most strategic areas, particularly regarding economy and employment (4.3 points). Gender analysis revealed that elderly men expressed lower satisfaction with health and cultural services; women in their 40s reported greatest concerns with settlement infrastructure; and elderly women indicated lowest contentment with economic conditions. Disparities between eup

(town) and myeon (township) areas were less pronounced than urban-rural differences, though significant gaps in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1.1 points) highlighted inadequate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myeon areas.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3

제2장 조사 개요

- 1. 조사 방법 5
- 2. 조사 항목 7
-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0

제3장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정주 만족도 비교

- 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13
- 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만족도 22
- 3.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31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인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분석

- 1.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35
- 2.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41
- 3.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 66

제5장 결론

- 1. 조사 결과 요약 73
- 2. 시사점 78

부 록

1. 2024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표	81
2. 2020~2024년 도·농 정주 만족도 추이	88
3. 2024년 4대 전략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90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결과	94
5.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및 ANOVA 결과	97
참고문헌	123

제2장

〈표 2-1〉 2024년 조사 문항의 변경 8
 〈표 2-2〉 202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9
 〈표 2-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0
 〈표 2-4〉 도시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1
 〈표 2-5〉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2

제3장

〈표 3-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만족도 인식 변화 14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인식 변화 17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 변화 20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23
 〈표 3-5〉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25
 〈표 3-6〉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26
 〈표 3-7〉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27
 〈표 3-8〉 경제·일자리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28
 〈표 3-9〉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점수 29
 〈표 3-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29
 〈표 3-11〉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32
 〈표 3-12〉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33

제4장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40
 〈표 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43
 〈표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46
 〈표 4-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49

〈표 4-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52
〈표 4-6〉 성별·연령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54
〈표 4-7〉 성별·연령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55
〈표 4-8〉 성별·연령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56
〈표 4-9〉 성별·연령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57
〈표 4-10〉 성별·직업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58
〈표 4-11〉 성별·직업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59
〈표 4-12〉 성별·직업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60
〈표 4-13〉 성별·직업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61
〈표 4-14〉 직업군별·연령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62
〈표 4-15〉 직업군별·연령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63
〈표 4-16〉 직업군별·연령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64
〈표 4-17〉 직업군별·연령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65
〈표 4-18〉 삶의 질 정책 전략 및 시·도별 만족도 비교	67
〈표 4-19〉 삶의 질 정책 전략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비교	68
〈표 4-20〉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69
〈표 4-21〉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70
〈표 4-22〉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71
〈표 4-23〉 경제·일자리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72

제5장

〈표 5-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76
---------------------------	----

제2장

〈그림 2-1〉 조사 개요 6

제3장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5

〈그림 3-2〉 주관적 웰빙 만족도 조사 결과 18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21

〈그림 3-4〉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22

〈그림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 추이 24

〈그림 3-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30

〈그림 3-7〉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34

제4장

〈그림 4-1〉 시·도별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 평균 만족도 66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동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국무조정실 총괄 이하 21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다.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농촌 지역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4년부터는 도시 지역을 포함해 지역별 층화추출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지역 주민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 2021년부터는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농어촌 영향평가의 특정 주제에 대한 도·농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시 비정기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다.¹⁾

¹⁾ 2024년에는 비정기 설문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다.

2. 연구 내용

2.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한다.

-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등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를 확인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삶의 질 실태와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전략별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한다.
- 조사된 설문 문항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귀무가설²⁾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도·농 간 만족도 점수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또한 4대 전략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략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비교·평가할 수 있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4대 전략별 현주소를 확인한다.
- 아울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조사하고,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²⁾ 귀무가설: 각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각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 특성별, 거주 지역별(읍·면, 시·도별)로 각 전략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를 연령대, 직업군, 성별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여건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 거주하는 읍·면부에 따른 만족도, 시·도별 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 간 정주 여건 실태를 비교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³⁾를 병행하였다.
 -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⁴⁾에 따라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동 지역을 도시로 구분하여 응답자 표본을 추출하였다.
 - 도시 지역은 1,000명, 농어촌 지역은 2,500명 할당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 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3)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4)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650명이며, 그중 도시(동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1,000명, 농어촌(읍·면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2,650명이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62\%p$ 이다.

〈그림 2-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0명(동 지역 1,000명, 읍·면 지역 2,650명)
표본 오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62\%p$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2,400부(도시 1,000부, 농어촌 1,400부)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농어촌 1,250부
표본 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0. 2. ~ 2024. 10. 31.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항목

○ 202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대 전략별 만족도,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을 조사하였다.

2.1.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 정주 만족도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조사 문항과 틀은 유지하되, 질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슈를 반영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주관적 웰빙 문항 중 주체적,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일하는 삶의 방식 추구’ 문항을 추가하였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문항 중 이웃간 교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인 ‘이웃간 도움’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정주기반 전략 중 거주환경의 혼잡 및 과밀, 소음에 대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정주기반 전략 중 기존의 ‘정돈된 환경·경관’ 문항을 ‘환경’과 ‘경관’으로 각각 분리하여, ‘정돈된 주변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 매우 주관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슷한 문항을 통해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응답자의 이해도가 낮아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 교육·문화 전략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대학생 멘토링이나 마을교사 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나, 특수한 여건으로 응답자가 답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 정주기반 전략의 '난방 비용'은 연간 지출되는 난방비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특히 주관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전략 내 '난방 인프라' 문항을 통해 난방 여건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2018년도 조사부터 동일하게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였다.

〈표 2-1〉 2024년 조사 문항의 변경

전략	문항	비고
주관적 웰빙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신규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이웃간 도움] 나는 이웃과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정주기반	[여유로운 주변환경] 사람 또는 각종 시설물로 인해 혼잡하지 않고 여유롭다. [조용한 주변환경] 소음과 진동이 적어 조용하다.	
정주기반	[정돈된 환경·경관]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 [정돈된 주변환경] 마을 환경(안길, 담장 등)이 깨끗하게 잘 정비·정돈되어 있다. → [아름다운 자연·경관] 마을 주변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을 누릴 수 있다.	수정 (문항 분리)
교육·문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활동(대학생 멘토링, 마을교사 활동 등)이 잘 이뤄진다.	삭제
정주기반	[난방 비용] 연간 지출되는 난방비가 적절하다.	

자료: 저자 작성.

○ 이를 종합한 조사 항목 구성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별 여건 만족도 등으로 〈표 2-2〉⁵⁾와 같다.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삶과 관련된 전반적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5) 〈부록 1〉의 '2024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표'를 참조한다.

〈표 2-2〉 202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복감 • 주관적 건강 인식 •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 마을 발전 전망 • 시·군 발전 전망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 어제의 행복 정도 •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 어제의 우울 정도 •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공동체 및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속감 •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 이웃과의 관계 • 이웃간 도움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동안 주요 활동반경 • 이주 의향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 및 시기 •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3>과 같다.

- 202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체 응답자는 3,650명이다. 이중 도시 지역의 응답자가 1,000명(27.4%), 농어촌 지역의 응답자가 2,650명(72.6%)이다. 거주지역 구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 응답자가 696명(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0대 응답자가 854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표 2-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650	100.0	전체		3,650	100.0
도시·농어촌	도시(동)	1,000	27.4	성별	남성	1,882	51.6
	농어촌(읍·면)	2,650	72.6		여성	1,768	48.4
거주지역	서울	230	6.3	연령대	19~29세	459	12.6
	인천·경기	668	18.3		30대	498	13.6
	대전·세종·충청	696	19.1		40대	649	17.8
	광주·전라	571	15.6		50대	747	20.5
	대구·경북	555	15.2		60대	854	23.4
	부산·울산·경남	632	17.3		70대 이상	443	12.1
	강원·제주	298	8.2		혼인상태	기혼	2,614
거주기간	10년 미만	1,217	33.3	미혼		1,036	28.4
	10~19년	706	19.3	직업	농림어업	832	22.8
	20~29년	590	16.2		자영업	264	7.2
	30~39년	350	9.6		사무·관리직	892	24.4
	40년 이상	787	21.6		생산·기능·노무직	291	8.0
가구구성	독신 가구	626	17.2		판매/영업직	107	2.9
	1세대 가구	1,082	29.6		서비스직	200	5.5
	2세대 가구	1,735	47.5		전문/기술직	239	6.5
	3세대 가구	169	4.6	주부/퇴직/무직	684	18.7	
	기타 가구	38	1.0	학생	110	3.0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78	7.6	학력	기타	31	0.8
	1,000만 원대	248	6.8		초등학교 졸업 이하	283	7.8
	2,000만 원대	454	12.4		중학교 졸업	220	6.0
	3,000만 원대	679	18.6		고등학교 졸업	1056	28.9
	4,000만 원 이상	1,991	54.5		대학교 졸업 이상	2091	57.3

자료: 저자 작성.

○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4>와 같다.

- 도시 지역의 전체 응답자는 1,000명으로,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자가 344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 지역 응답자의 60.4%(604명)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이며, 40.4%(404명)가 사무·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81.6%(816명)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4> 도시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89	58.9	
					여성	411	41.1	
거주지역	서울	230	23.0	연령대	19~29세	159	15.9	
	인천·경기	344	34.4		30대	159	15.9	
	대전·세종·충청	87	8.7		40대	182	18.2	
	광주·전라	81	8.1		50대	199	19.9	
	대구·경북	81	8.1		60대	263	26.3	
	부산·울산·경남	144	14.4		70대 이상	38	3.8	
	강원·제주	33	3.3		혼인상태	기혼	615	61.5
거주기간	10년 미만	386	38.6	미혼		385	38.5	
	10~19년	222	22.2	직업		농림어업	4	0.4
	20~29년	231	23.1			자영업	80	8.0
	30~39년	102	10.2			사무·관리직	404	40.4
	40년 이상	59	5.9		생산·기능·노무직	61	6.1	
가구구성	독신 가구	170	17.0		판매/영업직	36	3.6	
	1세대 가구	175	17.5	서비스직	37	3.7		
	2세대 가구	604	60.4	전문/기술직	93	9.3		
	3세대 가구	42	4.2	주부/퇴직/무직	237	23.7		
	기타 가구	9	0.9	학력	학생/기타	48	4.8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54		5.4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0.2
1,000만 원대		36	3.6		중학교 졸업	4	0.4	
2,000만 원대		95	9.5		고등학교 졸업	178	17.8	
3,000만 원대		151	15.1		대학교 졸업 이상	816	81.6	
4,000만 원 이상		664	66.4					

자료: 저자 작성.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5>와 같다.

- 농어촌 지역 전체 응답자 2,650명 중 읍 지역 응답자는 1,250명(47.2%)이며, 면 지역 응답자는 1,400명(52.8%)이었다.
- 거주지역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609명(23.0%)으로 가장 많았으며, 31.2%(828명)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21.4%(567명)는 귀농·귀촌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2-5>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2,650	100.0	성별	남성	1,293	48.8
행정구역	읍 지역	1,250	47.2		여성	1,357	51.2
	면 지역	1,400	52.8		연령대	19~29세	300
거주지역	서울	-	-	30대		339	12.8
	인천·경기	324	12.2	40대		467	17.6
	대전·세종·충청	609	23.0	50대		548	20.7
	광주·전라	490	18.5	60대		591	22.3
	대구·경북	474	17.9	70대 이상		405	15.3
	부산·울산·경남	488	18.4	혼인상태		기혼	1,999
	강원·제주	265	10.0		미혼	651	24.6
거주기간	10년 미만	831	31.4	직업	농림어업	828	31.2
	10~19년	484	18.3		자영업	184	6.9
	20~29년	359	13.5		사무·관리직	488	18.4
	30~39년	248	9.4		생산·기능·노무직	230	8.7
	40년 이상	728	27.5		판매/영업직	71	2.7
가구구성	독신 가구	456	17.2		서비스직	163	6.2
	1세대 가구	907	34.2		전문/기술직	146	5.5
	2세대 가구	1,131	42.7		주부/퇴직/무직	447	16.9
	3세대 가구	127	4.8		학생/기타	93	3.5
	기타 가구	29	1.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81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24	8.5	중학교 졸업		216	8.2
	1,000만 원대	212	8.0	고등학교 졸업		878	33.1
	2,000만 원대	359	13.5	대학교 졸업 이상		1,275	48.1
	3,000만 원대	528	19.9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567	21.4
	4,000만 원 이상	1,327	50.1		아니다	2,083	78.6

자료: 저자 작성.

3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1.1.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는 ‘현재 행복감’, ‘주관적 건강 인식’,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을 조사한다.
- ‘현재 행복감’, ‘주관적 건강 인식’,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⁶⁾
 -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은 ‘현재 행복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도·농 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점수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⁶⁾ ‘주관적 건강 인식’은 문항이 개설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응답이 도시 지역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반적 만족도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한 항목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이었다.

-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약간 낮았다.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 지역 주민들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평가했으나, 도·농 간 점수 격차는 2020년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다만, 2024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⁷⁾, '마을 발전 전망'은 도·농 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만족도 인식 변화

(단위: 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 행복감	도시 지역	5.5	6.2	5.8	6.0	6.0
	농어촌 지역	6.2	6.6	6.3	6.6	6.6
	도·농 차이	0.7	0.4	0.5	0.6	0.6
주관적 건강 인식	도시 지역	-	6.3	5.9	6.0	5.9
	농어촌 지역	-	6.5	6.3	6.4	6.5
	도·농 차이	-	0.2	0.4	0.4	0.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도시 지역	5.8	6.4	6.0	6.2	6.3
	농어촌 지역	6.3	6.7	6.3	6.5	6.6
	도·농 차이	0.5	0.3	0.3	0.3	0.3
마을 발전 전망	도시 지역	3.2	6.8	6.3	6.4	6.2
	농어촌 지역	5.7	6.5	6.1	6.3	6.1
	도·농 차이	-0.5	-0.3	-0.2	-0.1	-0.1
시·군 발전 전망	도시 지역	6.3	6.9	6.4	6.5	6.3
	농어촌 지역	6.0	6.6	6.3	6.4	6.3
	도·농 차이	-0.3	-0.3	-0.1	-0.1	0.0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9	6.5	6.1	6.2	6.2
	농어촌 지역	6.0	6.6	6.3	6.4	6.4
	도·농 차이	0.1	0.1	0.2	0.2	0.3

주 1)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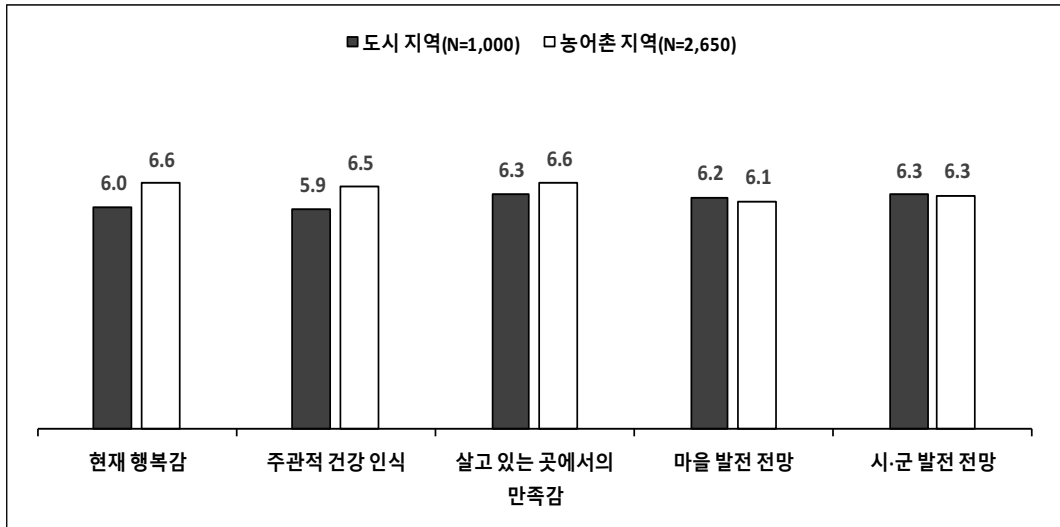
3) 2024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문항의 t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도·농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7) t-test 결과는 <부록 4>를 참고한다.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은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를 조사한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최근 삶에 대한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가치 정도’,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높았다.

- 부정적 정서⁸⁾를 묻는 문항은 역 문항으로 측정하여,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항목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낮아 주관적 웰빙 수준이 더 높았다.
- 결과적으로 6개 문항을 포괄하는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근심·걱정이나 우울감의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긍정적 정서인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에 대한 점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0.1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신규 문항으로 추가된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0.4점 더 높았다.
- 반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2024년으로 오면서 부정적 정서가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2점,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0.4점 향상되었다.⁹⁾

- 도시 지역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개선되어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 상승되었고, 농어촌 지역은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약간 하락했지만, 주관적 웰빙의 전반적인 점수는 상승하였다.

8) 부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은 역 문항으로 조사하여, 만족도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9) '24년의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는 신규 문항(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나, 신규 문항을 제외한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또한 도시 지역 5.8점, 농어촌 지역 6.4점으로 이전 연도 평균 점수와 비교 시 참고하도록 한다.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인식 변화

(단위: 점)

구분		2020	2022	2023	2024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도시 지역	5.5	5.7	6.0	6.0
	농어촌 지역	6.1	6.2	6.6	6.5
	도·농 차이	0.6	0.5	0.6	0.6
어제의 행복 정도	도시 지역	5.6	5.8	6.1	6.1
	농어촌 지역	6.1	6.3	6.6	6.6
	도·농 차이	0.5	0.5	0.5	0.5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도시 지역	5.9	5.8	5.5	5.1
	농어촌 지역	4.9	4.9	5.1	4.4
	도·농 차이	-1.0	-0.9	-0.4	-0.7
어제의 우울 정도	도시 지역	5.1	4.5	4.4	4.1
	농어촌 지역	4.3	3.9	4.0	3.3
	도·농 차이	-0.8	-0.6	-0.4	-0.8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도시 지역	5.7	5.7	5.8	6.0
	농어촌 지역	5.9	6.1	6.3	6.3
	도·농 차이	0.2	0.4	0.5	0.3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도시 지역	-	-	-	6.0
	농어촌 지역	-	-	-	6.3
	도·농 차이	-	-	-	0.4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2	5.4	5.6	5.8
	농어촌 지역	5.8	6.0	6.0	6.4
	도·농 차이	0.6	0.6	0.4	0.5

주 1) 주관적 웰빙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020년 조사 결과를 적용함.

2)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문항은 2024년 신규 문항임.

3)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4) 전체 평균 산출 시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역코딩 후 점수 산출에 적용함.

5)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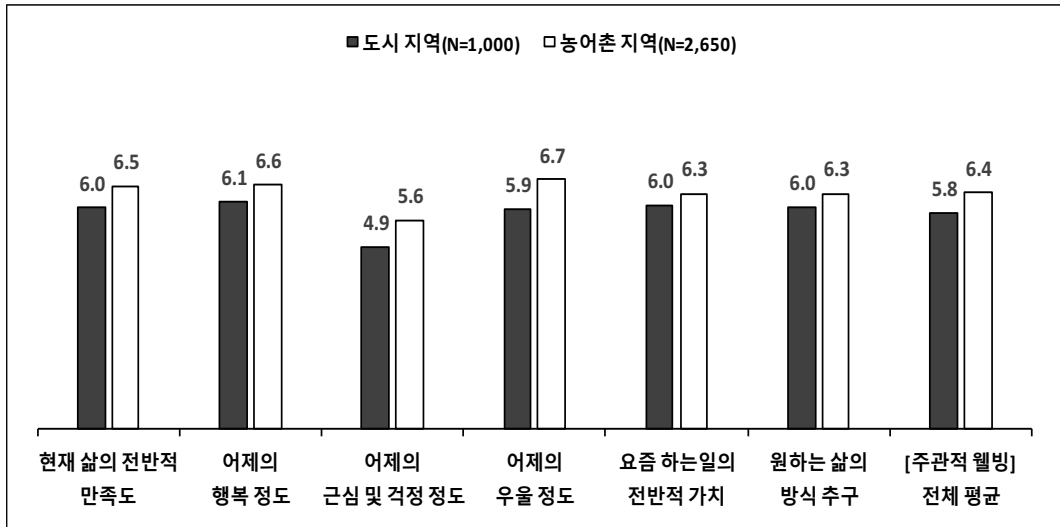
6)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7) 2024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그림 3-2〉 주관적 웰빙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3. 공동체 및 지역사회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요 항목인 ‘공동체’와 ‘시민참여’ 항목의 지표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은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함께 타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해 개방되어있는 태도 수준을 조사한다.

- 조사 항목은 ‘지역 소속감’,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이웃과의 관계’, ‘이웃간 도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이다.¹⁰⁾

¹⁰⁾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거주 지역 외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리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타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도를 파악한다.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은 타지역 주민이 나의 거주 지역으로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대한 우호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의 우호성 정도를 파악한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보다 높았다.
 -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각각 0.6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으로 신규 추가된 ‘이웃간 도움’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 대비 1.0점 더 높았다.

- 최근 4년간의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보다 높았다.
 - ‘지역 소속감’ 항목에서는 4년간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 간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또한, 2022년 신설된 항목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도 3년간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도시 지역의 점수보다 높으면서 증가함에 따라 도·농 간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 지역 내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타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모두 전년도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 ‘지역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간 도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에 대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는 각각 5.6점, 5.9점, 5.2점, 4.3점인 데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6.2점, 6.5점, 6.3점, 5.1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에 대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는 6.1점,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6.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의 전년도 점수는 도시 지역 4.6점, 농어촌 지역 4.6점으로 점수가 같았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0.1점 더 높았다.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 변화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지역 소속감	도시 지역	5.7	5.4	5.5	5.6
	농어촌 지역	6.1	5.9	6.1	6.2
	도·농 차이	0.4	0.5	0.6	0.6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도시 지역	5.6	5.8	5.8	5.7
	농어촌 지역	6.0	5.8	6.0	6.0
	도·농 차이	0.4	0.0	0.2	0.3
이웃과의 관계	도시 지역	5.8	5.7	5.8	5.9
	농어촌 지역	6.4	6.3	6.4	6.5
	도·농 차이	0.6	0.6	0.6	0.6
이웃간 도움	도시 지역	-	-	-	5.2
	농어촌 지역	-	-	-	6.3
	도·농 차이	-	-	-	1.0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도시 지역	-	4.2	4.3	4.3
	농어촌 지역	-	4.5	4.9	5.1
	도·농 차이	-	0.3	0.6	0.8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도시 지역	-	6.1	6.1	6.1
	농어촌 지역	-	6.3	6.3	6.2
	도·농 차이	-	0.2	0.2	0.1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도시 지역	-	4.6	4.6	4.6
	농어촌 지역	-	4.3	4.6	4.7
	도·농 차이	-	-0.3	0.0	0.1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7	5.3	5.4	5.3
	농어촌 지역	6.2	5.5	5.7	5.9
	도·농 차이	0.5	0.2	0.4	0.5

주 1) 2024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도·농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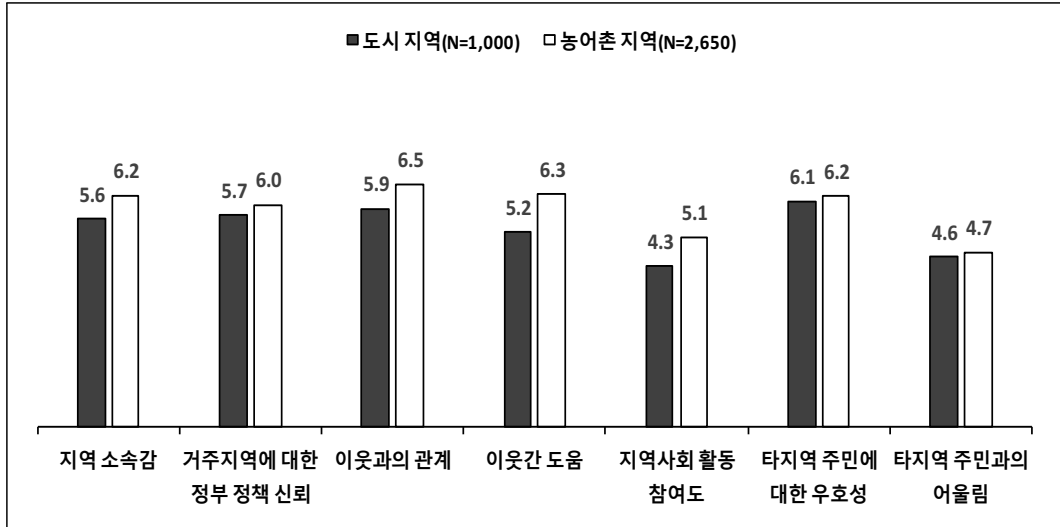
2)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3) 도·농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만족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전략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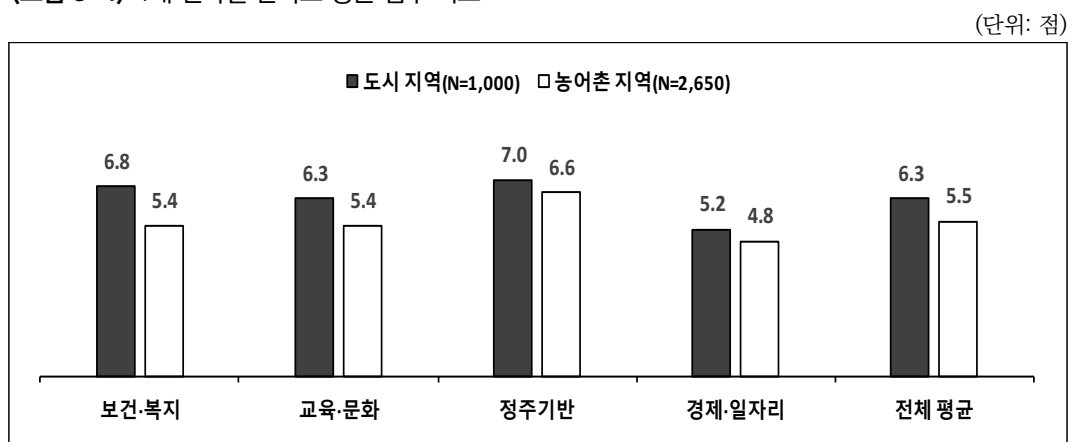
- 전략별 만족도 점수는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해당 전략의 만족도 점수로 산출한 것이다. 세부 문항에 따라 응답 대상이 도시 지역 또는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설문한 문항의 점수만을 전략별 만족도 점수에 반영하였다.

2.1. 4대 전략별 만족도 추이

○ 4대 전략 전반에서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복지 전략의 도·농 간 격차가 가장 컸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보다 보건·복지 전략은 1.4점, 교육·문화 전략은 1.0점, 정주기반 전략은 0.5점, 경제·일자리 전략은 0.4점 높았다.

〈그림 3-4〉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4대 전략 중 정주기반을 제외하고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교육·문화 및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개선되었다.

- 도시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과 정주기반 전략의 점수는 전년 대비 각각 0.1점, 0.2점 하락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정주기반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만족도 점수가 하락하여,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만족도 격차가 소폭 증가하였다.

○ 조사 결과, 모든 전략에서 여전히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큰 전략은 보건·복지 전략으로 두 지역 간 점수 차이가 1.4점이다.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보건·복지	6.9	6.8	5.5	5.4	-1.4	-1.4
교육·문화	6.2	6.3	5.6	5.4	-0.6	-1.0
정주기반	7.2	7.0	6.3	6.6	-0.9	-0.5
경제·일자리	5.0	5.2	5.2	4.8	0.2	-0.4
전체 평균	6.3	6.3	5.6	5.5	-0.7	-0.8

주 1)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3) 2023년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모든 전략의 t 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2024년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모든 전략의 t 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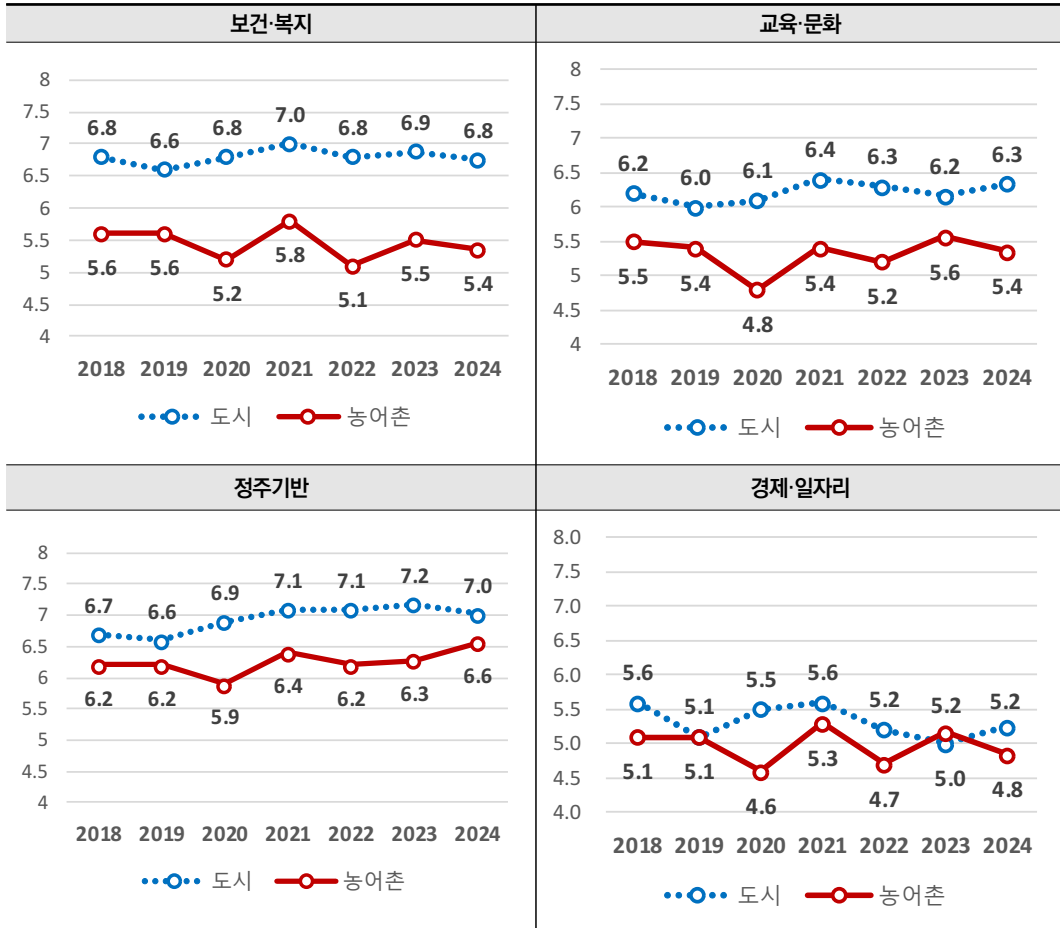
○ 정주 만족도 점수의 척도가 11점 척도로 고정된¹¹⁾ 2018년 이후의 4대 전략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전략, 정주기반 전략의 만족도 격차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건·복지 전략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11)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점~10점)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과 2018년 이후 조사는 11점 척도(0점~10점)를 사용하였다.

○ 경제·일자리 전략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점수 격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은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았고, 2024년에 다시 격차가 발생했다.

〈그림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 추이

(단위: 점)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2.2. 4대 전략별 세부 항목 만족도

□ 보건·복지 전략

○ 보건·복지 전략은 4대 전략 중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 전략의 도·농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1.4점으로 4대 전략 중 도·농 간 만족도 점수 격차가 가장 컸다.
- 보건·복지 전략 여건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농어작업 안전성¹²⁾’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지역보다 낮았다.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들의 평균 격차는 1.9점¹³⁾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분만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격차가 2.1점으로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의 분만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시사한다.
-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평균 0.4점으로, 보건·복지 전략의 세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나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표 3-5〉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5	7.2	7.1	6.6	6.8	6.4	6.3	6.2	-	6.8
농어촌 지역	6.0	5.2	5.2	4.5	4.9	5.6	5.5	5.7	6.1	5.4
도·농 차이	-1.5	-2.0	-1.9	-2.1	-1.8	-0.7	-0.8	-0.4	-	-1.4

주 1)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농어작업 안전성’ 제외).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은 전체 응답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832명)만 분석하였고, 이 중 농어촌 지역 응답자는 828명이며, 도시 지역은 4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도·농 간 만족도 점수의 비교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 지역의 점수만 기재하였으며, 균형있는 만족도 점수 산정을 위해 평균 점수 계산 시 해당 문항은 제외하였다.

13)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도·농 간 차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 교육·문화 전략

○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는 보건·복지 전략 다음으로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문화 전략 중 ‘문화·여가 시설’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는 각 1.3점으로 다른 세부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자녀교육과 관련한 세부 항목 중 ‘공교육 수준’(1.0점)과 ‘방과 후 교육 기회’(1.1점)에 대한 만족도에서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도 도·농 간 격차가 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수준이 열악해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교육·문화 전략의 세부 문항 중 ‘지역 향토 문화 기회’¹⁴⁾에 대한 도·농 간 만족도 격차는 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 향토 문화 기회’에 대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각 6.0점, 5.5점으로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농어촌 지역에 지역 향토 문화 자원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¹⁵⁾이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7	6.7	6.3	6.5	6.3	5.8	6.0	6.3
농어촌 지역	5.7	5.6	5.3	5.2	5.0	5.1	5.5	5.4
도·농 차이	-1.0	-1.1	-1.0	-1.3	-1.3	-0.7	-0.4	-1.0

주 1)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4) ‘지역 향토 문화 기회’는 해당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15) 농어촌 주민이 문화·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주된 제약요인이 ‘적합한 시설·장소가 없음’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3).

□ 정주기반 전략

○ 농어촌 지역은 자연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거나, 대중교통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에서는 여전히 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유로운 주변 환경’, ‘조용한 주변 환경’, ‘범죄 안전’, ‘아름다운 자연·경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1.6점, ‘식자재 구입’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1.5점, ‘생활 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각각 1.4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특히,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신선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나타내는 ‘식품 사막’¹⁶⁾ 이슈가 제기된 바 있는데, 신선 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자재 구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도시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3-7〉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인프라	난방인프라	생활서비스	식자재구입	다양한외식장소	주택상태	교통안전	여유로운주변환경	조용한주변환경	자연재해안전	범죄안전	적은환경오염	정돈된주변환경	아름다운자연·경관	전체평균
도시지역	7.2	7.8	7.5	7.6	7.3	7.7	7.4	6.9	6.6	6.6	6.2	7.0	6.7	6.5	6.7	6.6	7.0
농어촌지역	5.6	7.2	6.8	6.3	5.8	6.2	6.0	6.5	6.5	7.0	6.9	6.8	6.9	6.7	6.8	7.0	6.6
도·농차이	-1.6	-0.6	-0.7	-1.3	-1.4	-1.5	-1.4	-0.4	-0.1	0.5	0.7	-0.2	0.2	0.2	0.0	0.4	-0.5

주 1)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도·농 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교통안전’,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주변환경’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6)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마을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https://www.mafra.go.kr/bbs/home/792/570959/artclView.do>).

□ 경제·일자리 전략

○ 경제·일자리 전략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전략 대비 도·농 간 격차가 가장 작았다.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충분성' 항목의 만족도 점수 격차가 0.7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분한 소득', '일자리 지원'에 관한 항목이 각 0.6점으로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 '로컬푸드 판매' 항목과 같이 농어촌 특화 영역에서 도·농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경제·일자리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적절한 물가수준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0	5.0	5.3	5.1	5.4	5.5	5.2	5.5	-	5.2
농어촌 지역	4.5	4.3	4.7	4.9	4.8	5.4	4.9	5.1	5.1	4.8
도·농 차이	-0.5	-0.7	-0.6	-0.2	-0.6	-0.1	-0.2	-0.3	-	-0.4

주 1) 균형있는 비교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조사된 공통 문항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계산함.
 2) 도·농 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3) 도·농간 차이는 '농어촌-도시' 방식으로 산출함.
 4) 만족도 점수의 도·농 간 비교 시 '로컬푸드 판매'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3. 삶의 질 정책 4대 전략별 중요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 중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정주기반'에 관한 전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4대 전략별 중요도 점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정책 전략 우선순위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정주기반, 교육 및 문화, 경제·일자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점수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의료, 돌봄, 보육·육아, 사회안전망)	7.2	6.8
교육 및 문화 (교육, 평생교육, 문화·여가)	6.9	6.5
정주기반 (교통,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환경·경관)	7.2	6.8
경제·일자리 (소득기반, 관광, 취·창업, 여성·다문화 일자리)	6.6	6.4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IPA분석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4대 전략 전체의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사분면에 현상유지, 유지관리, 점진개선, 우선개선 영역을 표시하여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중요도 측면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전체 평균은 6.8점이다. 도시 지역은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농어촌 지역은 교육·문화 전략과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 만족도 측면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전체 평균은 5.9점이다. 도시 지역은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3-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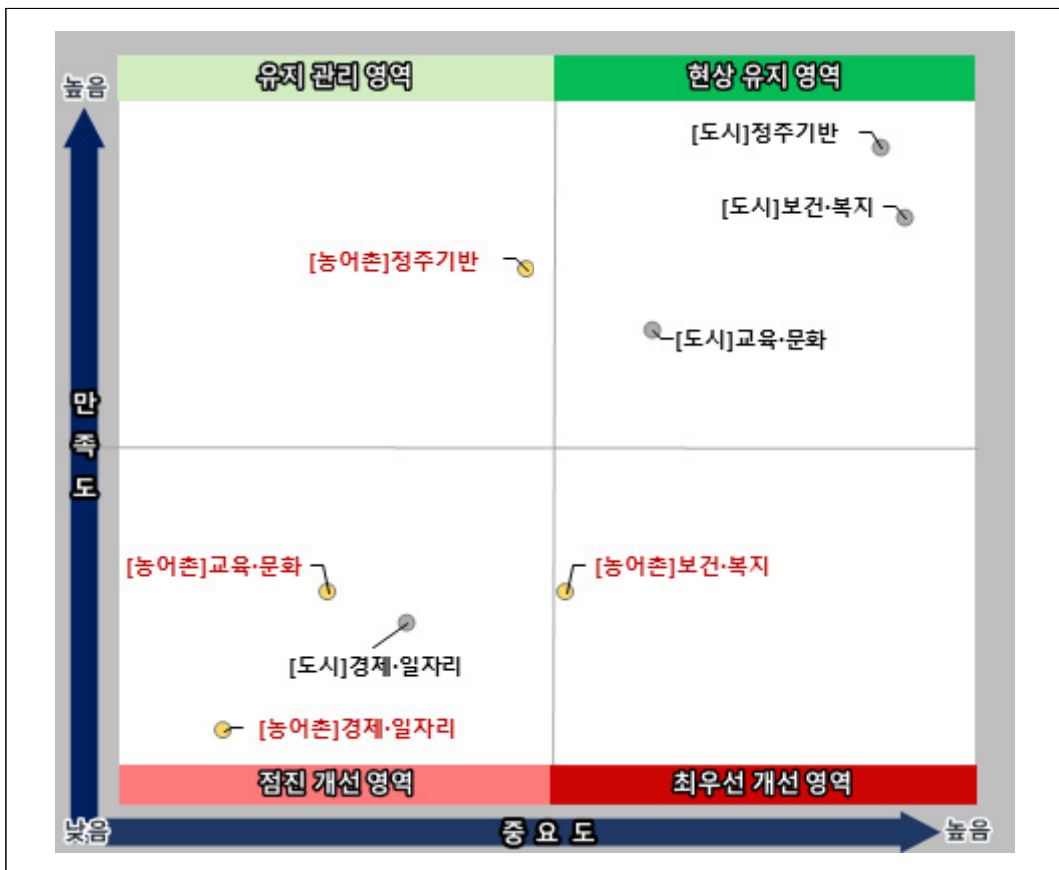
전략		중요도(X축)	만족도(Y축)
도시 지역	보건·복지	7.2	6.8
	교육·문화	6.9	6.3
	정주기반	7.2	7.0
	경제·일자리	6.6	5.2
농어촌 지역	보건·복지	6.8	5.4
	교육·문화	6.5	5.4
	정주기반	6.8	6.6
	경제·일자리	6.4	4.8
전체 평균		6.8	5.9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4대 정책 전략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해당하고, 교육·문화 전략과 경제·일자리 전략이 점진 개선 영역에 해당하였다.

-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주기반 전략이었으나, 도시 지역과의 중요도 및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시 주민들은 경제·일자리 전략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주기반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가장 높았다.

〈그림 3-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 이주 의향에 따른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면, 이주 의향이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정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대 전략별 만족도 등 모든 정주 만족도 항목에서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의 만족도가 이주 의향이 높은 주민보다 더 높았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1.3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웰빙(1.0점)’, ‘전반적 만족도(0.8점)’ 등 삶의 질 만족도 관련 문항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대 전략 중 특히 정주기반 전략에서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0.6점)가 크게 나타나, 정주기반 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이주 의향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전반적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0.7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웰빙(0.6점)’, ‘정주기반(0.6점)’, ‘경제·일자리(0.6점)’ 등 삶의 질 문항과 4대 전략별 만족도 문항의 격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농촌 지역 주민 대비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과 4대 전략별 만족도에 관한 문항의 격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n=1,000)			농어촌 지역(n=2,650)		
		이주 의향 있음 (n=598)	이주 의향 없음 (n=402)	차이	이주 의향 있음 (n=920)	이주 의향 없음 (n=1,730)	차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9	6.6	-0.7	5.9	6.7	-0.8
	주관적 웰빙	5.6	6.2	-0.6	5.7	6.7	-1.0
	공동체 및 지역사회	5.1	5.8	-0.7	5.1	6.3	-1.3
4대 전략별 만족도	보건·복지	6.6	7.0	-0.5	5.2	5.5	-0.3
	교육·문화	6.1	6.6	-0.5	5.2	5.4	-0.2
	정주기반	6.8	7.4	-0.6	6.2	6.8	-0.6
	경제·일자리	5.0	5.6	-0.6	4.6	5.0	-0.4
	전체 평균	5.9	6.4	-0.6	5.4	6.0	-0.6

주 1)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차이는 '이주 의향 있음-이주 의향 없음'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정주 만족도에 따라 이주 의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정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 농어촌 지역 주민 중에서는 34.7%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 지역 주민 중에서는 59.8%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농어촌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직장이나 일자리(34.0%)', '자녀 교육(13.7%)', '의료 서비스/건강(12.7%)' 순이었고, 도시 주민은 '주택 문제(28.3%)', '직장이나 일자리(26.6%)', '자연환경(14.5%)'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표 3-12〉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구분	도시 지역(n=598)		농어촌 지역(n=920)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	159	26.6	313	34.0
주택 문제 때문에(주택 노후 등)	169	28.3	98	10.7
자녀 교육 때문에	47	7.9	126	13.7
의료 서비스 / 건강 때문에	27	4.5	117	12.7
기초생활서비스 때문에(생필품 구입 등)	15	2.5	53	5.8
교통 때문에	42	7.0	72	7.8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때문에	28	4.7	70	7.6
자연환경 때문에	87	14.5	36	3.9
안전 문제 때문에(자연재해, 치안 등)	2	0.3	7	0.8
기타	22	3.7	28	3.0
합계	598	100.0	920	100.0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518)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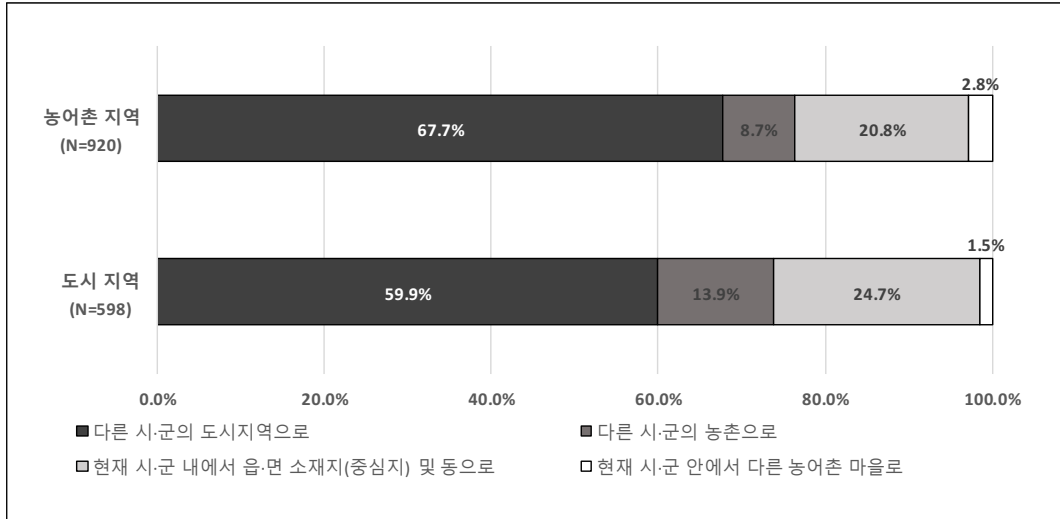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하려는 지역을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 주민들이 도시 지역(다른 시·군 또는 현재 시·군)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 중 67.7%는 다른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20.8%는 현재 시·군의 읍·면 소재지나 동으로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이주 희망 농어촌 주민의 88.5%가 도시 지역이나 농어촌의 중심지로 이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 중 다른 시·군의 농어촌 또는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어촌 마을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은 11.5%에 불과했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 주민들도 다른 시·군의 도시 지역이나 현재 시·군의 읍·면 소재지 및 동으로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84.6%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군의 농어촌 및 현재 시·군 내 다른 농어촌 마을로 이주하겠다는 주민 비율은 15.4%로 농어촌 주민의 응답(11.5%)에 비해 3.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단위: %)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518)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농어촌 주민의 인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분석

1.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 농어촌 주민의 인구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2,650명)의 연령, 직업군, 성별, 거주지역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점수를 도출하였다.¹⁷⁾
- 농어촌 인구 특성과 지역을 세분화하여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 사회 인식 비교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17) 4장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그룹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t-검정,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4~5>에 수록하였다.

1.1. 전반적 만족도

-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40대 이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40대 이하 6.2점, 50대 6.5점, 60대 6.7점, 70대 이상 6.6점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은 ‘주관적 건강 인식(6.4)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타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농어촌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읍부가 면부의 평균 만족도보다 높았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은 각각 6.5점, 6.4점으로 나타났다. 남녀 현재 행복감에 대한 점수가 각각 6.7점, 6.5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가 각각 6.2점, 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6.4점으로 남성의 점수 대비 낮은 편이었으며, t-검정 결과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을 제외한 항목에서 성별 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6.5점, 면부는 6.4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행복감’은 읍부와 면부에서 모두 6.6점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 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직업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군이 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직업군은 6.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이 7.0점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 중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직업군의 경우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이 가장 높았다. 직업군별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의 점수는 비농림어업 종사하는 경우 6.5점,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6.4점으로 나타났다.
- 직업군 간 평균 비교를 위한 분산분석 결과,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항목에서 농림어업 직업군과 나머지 직군(비농림어업 직업군, 기타 직업군)의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주관적 웰빙

- 연령에 따른 주관적 웰빙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5.8점) 연령층에서 가장 낮고, 60대(6.7점)와 70대 이상(6.6점)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및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등 긍정적 정서에서 40대 이하 연령대의 만족감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고, 특히 60~70대 이상 고령층과 만족도 차이가 컸다.
 - 특히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문항에서도 40대 이하 연령층의 응답이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청년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 평균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고, 지역별로는 읍부보다 면부의 평균 만족도가 높았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은 각각 6.3점, 6.1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6.6점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 '어제의 행복 정도'에 대한 점수가 6.6점으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t-검정 결과 '어제의 행복 정도',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를 제외한 주관적 웰빙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6.1점, 면부는 6.4점으로 조사되었다. 면부의 경우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6.6점으로 가장 높고, 읍부의 경우 ‘어제의 행복 정도’가 6.6점으로 다른 문항 대비 높았다.
-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은 읍부의 응답자보다 면부의 응답자가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직업에 따른 주관적 웰빙은 농림어업 직군이 6.7점으로 가장 높고,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군은 각각 6.1점, 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농림어업 직군에서는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6.9점으로 가장 높고,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에서는 ‘어제의 행복 정도’가 각각 6.5점, 6.4점으로 가장 높았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다른 직군 대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를 묻는 문항에서는 비농림어업 직군의 만족도가 기타 직군에 비해 높고, 타 문항과 달리 두 직군 간 평균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공동체 및 지역사회

○ 연령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5.2점으로 가장 낮았고, 타 연령층은 모두 6.0점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평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40대 이하 5.2점, 50대 6.2점, 60대 6.4점, 70대 이상 6.5점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4.2점),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4.5점) 항목이 다른 항목 대비 점수가 낮았다. 또한 40대 이하 연령층의 ‘이웃간 도움’, ‘이웃과의 관계’, ‘지역 소속감’은 70대 이상 연령층과의 만족도 격차가 1.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은 남성의 만족도 점수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면 지역의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점수는 각각 6.0점, 5.7점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각각 6.7점, 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에 대한 점수가 각각 5.0점,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의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점수는 5.7점, 면부는 6.0점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4점, 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웃간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0점, 6.5점으로 나타나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관한 문항 중 읍·면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업군이 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군은 각각 5.6점,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특히 모든 항목에서 농림어업 직업군의 점수가 높고,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과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림어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체 인식이 훨씬 두터움을 시사한다.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06)	50대 (n=548)	60대 (n=591)	70대 이상 (n=405)	농림어업 (n=82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282)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40)	남성 (n=1,293)	여성 (n=1,357)	읍부 (n=1,250)	면부 (n=1,400)
		6.3	6.7	6.8	6.9	6.9	6.5	6.4	6.7	6.5	6.6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6.4	6.6	6.8	6.3	6.7	6.2	6.7	6.4	6.5	6.5
	주관적 건강 인식	6.2	6.6	7.0	7.1	7.0	6.5	6.4	6.7	6.5	6.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6.0	6.2	6.4	6.1	6.2	6.1	6.1	6.2	6.1	6.0
	마을 발전 전망	6.1	6.4	6.5	6.4	6.4	6.2	6.2	6.3	6.3	6.2
	시군 발전 전망	6.2	6.5	6.7	6.6	6.6	6.4	6.3	6.5	6.4	6.4
	6.2	6.6	6.8	6.8	6.8	6.4	6.3	6.6	6.4	6.4	6.6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6.4	6.7	6.7	6.6	6.7	6.5	6.4	6.6	6.6	6.5
	어제의 행복 정도	5.3	4.1	3.4	3.6	3.5	4.8	4.9	4.3	4.5	4.0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4.1	3.1	2.4	2.8	2.4	3.6	3.8	3.1	3.4	2.9
	어제의 우울 정도	6.0	6.5	6.7	6.6	6.7	6.2	6.0	6.5	6.2	6.4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6.0	6.5	6.7	6.6	6.7	6.3	6.0	6.5	6.2	6.4
	5.8	6.4	6.7	6.6	6.7	6.1	5.9	6.3	6.1	6.1	6.4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5.5	6.5	6.9	7.0	7.1	5.9	5.7	6.4	6.1	6.4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5.4	6.2	6.5	6.6	6.6	5.7	5.7	6.1	5.9	6.0
	이웃과의 관계	5.8	6.8	7.1	7.4	7.4	6.2	6.1	6.7	6.4	6.7
	이웃간 도움	5.3	6.5	7.1	7.4	7.4	5.8	5.8	6.4	6.2	6.5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4.2	5.6	5.9	5.6	6.1	4.8	4.3	5.4	4.8	5.3
	5.8	6.4	6.5	6.8	6.7	6.0	6.0	6.3	6.2	6.2	
	4.5	5.1	5.0	4.4	5.0	4.7	4.2	5.0	4.4	4.6	
	5.2	6.2	6.4	6.5	6.6	5.6	5.4	6.0	5.7	5.7	6.0

주 1) 연령대와 직업군의 분산분석 결과, $p < 0.05$ 유의수준에서 대부분 항목의 40대 이하와 나머지 연령대 간의 만족도에 통계적 차이가 있으며, 농림어업과 나머지 직군 간 점수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5〉 참조).

주 2) 성별 및 지역의 t-검정 결과, 각 세부 항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여부는 다르게 나타남(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5〉 참조).

주 3)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전체 평균 산출 시에는 역코딩 후 적용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1.1. 개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 보건·복지 전략

○ 보건·복지 전략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70대 이상 고령 응답자는 ‘분만의료 서비스’(3.9점), ‘의료 서비스 범위’(4.7점), ‘의료 서비스 수준’(4.7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4.9점) 순으로 여건 만족도가 낮았으며, 70대 이상 고령 응답자의 보건·복지 전략 평균 점수(5.2점)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평균 점수(5.3점)에 미치지 못했다.

- 특히 전 연령층에 걸쳐 ‘분만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범위·수준’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것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출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것을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의료 서비스 수준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직업군에 따른 분석 결과, 농림어업 종사자는 비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 전략 중 ‘분만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접근성’,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항목은 농림어업 종사자와 비농림어업 종사자 간의 만족도 격차가 각각 0.8점, 0.7점, 0.6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에서는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농어촌 남성의 보건·복지 평균 만족도는 5.5점, 농어촌 여성은 5.3점이며, 모든 항목에서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보건·복지 항목 중 남성과 여성 모두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분만의료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읍부 지역의 평균 만족도(5.8점)가 면부 지역의 평균 만족도(5.0점)보다 높았다.
 -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보건·복지 항목에 대한 점수는 전반적으로 읍부 지역이 면부 지역보다 높았으며,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에서의 만족도(6.6점)가 가장 컸다.
 - ‘분만의료 서비스’는 읍부 지역(5.0점)과 면부 지역(4.1점)에서 모두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조사됐다.

〈표 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06)	50대 (n=548)	60대 (n=591)	70대 이상 (n=405)	농림어업 (n=82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282)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40)	남성 (n=1,293)	여성 (n=1,357)	읍부 (n=1,250)	면부 (n=1,400)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6.3	6.1	5.3	5.5	6.2	6.3	6.1	5.9	6.6	5.5	
의료 서비스 범위	5.2	5.4	5.3	4.7	4.7	5.4	5.4	5.3	5.1	5.8	4.7		
의료 서비스 수준	5.4	5.4	5.3	4.7	4.8	5.5	5.4	5.3	5.2	5.8	4.8		
분만의료 서비스	4.7	4.7	4.5	3.9	4.0	4.8	4.7	4.6	4.4	5.0	4.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4.9	5.1	4.9	4.9	4.5	5.1	5.2	5.0	4.9	5.4	4.5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4	5.9	5.8	5.7	5.6	5.6	5.7	5.7	5.6	6.0	5.3		
아동 양육돌봄 지원	5.5	5.7	5.6	5.3	5.3	5.6	5.8	5.6	5.5	5.9	5.2		
취약계층 복지 지원	5.4	6.0	6.0	6.0	5.9	5.6	5.7	5.8	5.7	5.9	5.6		
농어직업 안전성(총사망)	5.9	6.0	6.1	6.2	6.1	-	-	6.1	6.0	6.1	6.1		
평균	5.3	5.6	5.5	5.2	5.1	5.5	5.5	5.5	5.3	5.8	5.0		

주 1) 평균 점수는 '농어직업 안전성'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2)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4) 성별 간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5) 지역 간 t-검정 결과, '농어직업 안전성'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읍·면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전략

○ 연령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문화에 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 중 교육 전략의 '평생교육 기회' 항목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문화 전략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0대 이하의 경우 '문화 공동체 활동',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70대 이상 고령 연령층에서는 교육과 문화의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여가 시설',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이 4점대로 나타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또한 70대 이상 고령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문화 활동에 관한 만족도 패턴은 60대 연령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성이 있다.

○ 직업군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는 비농림어업 종사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직업별 교육·문화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 4.9점, 비농림어업 종사자 5.5점, 기타 종사자 5.6점으로 농림어업 직군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 중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은 농림어업 직업군과 비농림어업 직업군과의 만족도 격차가 0.9점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남성의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는 5.3점으로 농어촌 여성의 만족도보다 0.1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공교육 수준'에 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에 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 그러나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지역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의 여건은 읍부가 면부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읍·면 간 차이(1.0점)가 가장 큰 항목으로, 면부 주민이 문화·여가 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교육·문화 전략에서 읍부의 만족도가 6.1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은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이나 면부와는 0.7점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 여건에 있어 농어촌 내 격차도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06)	50대 (n=548)	60대 (n=591)	70대 이상 (n=405)	농림어업 (n=82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282)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40)	남성 (n=1,293)	여성 (n=1,357)	읍부 (n=1,250)	면부 (n=1,400)	
	공교육 수준	5.8	5.9	5.8	5.2	5.3	5.9	5.9	5.7	5.7	6.1	5.4
방과 후 교육 기회	5.8	5.8	5.6	5.0	5.1	5.8	5.9	5.6	5.7	6.1	5.3	
평생교육 기회	5.3	5.4	5.2	5.0	4.9	5.4	5.5	5.2	5.3	5.6	5.0	
문화·여가 시설	5.4	5.3	5.1	4.5	4.5	5.5	5.5	5.1	5.2	5.7	4.7	
문화·여가 프로그램	5.3	5.2	5.0	4.3	4.4	5.3	5.4	5.0	5.1	5.6	4.6	
문화 공동체 활동	5.1	5.4	5.2	4.6	4.8	5.2	5.2	5.1	5.1	5.4	4.8	
지역 향토문화 기회	5.6	5.6	5.5	5.3	5.2	5.6	5.8	5.5	5.6	5.8	5.2	
평균	5.5	5.5	5.3	4.8	4.9	5.5	5.6	5.3	5.4	5.7	5.0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지역 향토문화 기회'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농림어업과 나머지 직군 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농림어업 직군과 기타 직군 사이에는 만족도 점수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지역 간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읍·면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전략

○ 연령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연령층에서 '대중교통'과 '생활 서비스'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정주기반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6.3점으로 가장 낮았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6.7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연령층에 따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50대 연령층은 '대중교통'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2점, 5.9점으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의 고령 연령층은 '생활서비스'의 항목에 관한 만족도가 각각 5.7점, 5.2점으로 가장 낮았다.
- '난방 인프라' 항목은 전 연령층 모두 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직업군에 따른 정주기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 직업군의 경우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업군 대비 평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주기반 만족도가 6.7점으로, 비농림어업 직업군의 점수(6.5점)와 기타 직업군의 점수(6.6점)보다 높았다.
-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생활 서비스', '다양한 외식 장소' 항목의 점수가 각각 5.3점으로 문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업군의 경우 '대중교통'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그러나 '대중교통' 항목은 직업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농어촌 남성의 정주기반 전략 평균 만족도는 6.6점, 농어촌 여성은 6.5점으로 나타나 남성의 만족도가 0.1점 높았다.

- 세부 여건 중 농어촌 남성과 여성 공통으로 '대중교통' 항목의 점수가 다른 문항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신시설'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 그러나 '난방 인프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어촌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는 읍부(6.8점)의 평균 만족도가 면부(6.3점)보다 높았다.

- 읍·면 모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대중교통’으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시사한다.
- 반대로 ‘통신시설’ 항목에서는 읍·면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비교적 농어촌 지역의 통신시설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교통안전’,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범죄환경’, ‘적은 환경오염’ 항목은 읍·면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06)	50대 (n=548)	60대 (n=591)	70대 이상 (n=406)	농림어업 (n=82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282)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40)	남성 (n=1,293)	여성 (n=1,357)	읍부 (n=1,250)	면부 (n=1,400)	
	대중교통	5.2	5.9	6.0	5.7	5.7	5.6	5.5	5.7	5.5	5.9	5.3
통신시설	7.1	7.3	7.3	7.3	7.3	7.1	7.4	7.2	7.2	7.5	7.0	
생활인프라	6.5	7.0	6.9	7.3	6.9	6.7	6.8	6.8	6.8	7.1	6.5	
난방인프라	6.3	6.3	6.3	6.3	6.1	6.4	6.5	6.2	6.4	6.8	5.9	
생활서비스	6.0	6.0	5.7	5.2	5.3	6.1	6.1	5.8	5.8	6.5	5.3	
사자재 구입	6.5	6.4	6.0	5.3	5.5	6.5	6.5	6.2	6.2	6.9	5.6	
다양한 외식 장소	6.3	6.2	5.8	5.2	5.3	6.3	6.2	5.9	6.0	6.6	5.4	
주택 상태	6.3	6.8	6.6	6.5	6.6	6.4	6.5	6.5	6.5	6.7	6.3	
교통안전	6.1	6.7	6.8	7.1	6.9	6.3	6.4	6.5	6.5	6.6	6.5	
여유로운 주변환경	6.7	7.2	7.2	7.4	7.4	6.8	6.9	7.1	7.0	7.0	7.0	
조용한 주변환경	6.4	7.0	7.1	7.6	7.4	6.6	6.7	7.0	6.8	6.8	6.9	
자연재해 안전	6.4	7.0	7.0	7.4	7.1	6.6	6.7	6.8	6.8	6.9	6.7	
범죄 안전	6.5	7.1	7.1	7.6	7.4	6.7	6.8	7.0	6.9	7.0	6.9	
적은 환경오염	6.2	6.9	6.9	7.3	7.1	6.5	6.5	6.8	6.6	6.7	6.6	
정돈된 주변환경	6.4	6.9	7.0	7.3	7.1	6.6	6.6	6.7	6.8	6.9	6.7	
아름다운 자연 경관	6.7	7.2	7.1	7.3	7.2	6.8	6.9	6.9	7.0	7.1	6.8	
평균	6.3	6.7	6.7	6.7	6.7	6.5	6.6	6.6	6.5	6.8	6.3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난방 인프라'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대중교통', '주택 상태'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난방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4) 지역 간 t-검정 결과, '교통안전',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읍면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

○ 경제·일자리 전략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연령별 경제·일자리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 50대가 5.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의 만족도가 4.9점, 70대 이상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70대 이상과 나머지 연령대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세부 여건 중 전체 연령층에서 '일자리 충분성' 항목의 점수(40대 이하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4.4점, 4.6점, 4.4점, 3.8점)가 가장 낮았다. 이는 농어촌 주민 상당수가 지역 내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 70대 이상의 고령 연령층에서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의 점수가 각각 4.8점으로 가장 높았다. 40~60대 연령층에서는 '로컬푸드 판매' 항목의 점수가 각각 5.6점, 5.4점, 5.4점으로 다른 문항 대비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 직업군에 따라 살펴보면,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일자리 전략의 만족도가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와 정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 직업군의 만족도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 경제·일자리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 4.7점, 비농림어업 종사자 5.1점, 기타 직업군 4.7점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군과 관계없이 '일자리 충분성' 항목에 대한 점수가 다른 문항의 점수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일자리가 직종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분산분석 결과 '적절한 물가수준',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은 직업군 간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농어촌 남성의 경제·일자리 전략 평균 만족도는 5.0점, 농어촌 여성은 4.8점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 충분성'(남성 4.5점, 여성 4.2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또한 '일자리 충분성(남성 4.5점, 여성 4.2점)',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남성 5.1점, 여성 4.8점)' 항목에서 성별 간 격차가 각각 0.3점으로 다른 문항 대비 크게 나타났다.
- '충분한 소득', '로컬푸드 판매',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항목은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 지역에 따른 경제·일자리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부(5.1점)가 면부(4.7점)보다 높았다.

- 읍·면 모두 '일자리 충분성'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읍부 4.5점, 면부 4.2점)를, '로컬푸드 판매'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읍부 5.7점, 면부 5.1점)를 보였다.

〈표 4-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06)	50대 (n=548)	60대 (n=591)	70대 이상 (n=406)	농림어업 (n=82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282)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40)	남성 (n=1,293)	여성 (n=1,357)	읍부 (n=1,250)	면부 (n=1,400)	
	일자리 용이성	4.6	4.8	4.6	3.9	4.3	4.9	4.1	4.6	4.4	4.7	4.4
일자리 충분성	4.4	4.6	4.4	3.8	4.1	4.6	4.0	4.5	4.2	4.5	4.2	
충분한 소득	4.9	4.8	4.6	4.0	4.4	5.0	4.4	4.8	4.6	4.9	4.5	
적절한 물가수준	5.0	5.0	5.0	4.5	4.9	5.0	4.7	5.0	4.8	5.1	4.8	
일자리 지원	4.9	5.0	4.7	4.2	4.5	5.0	4.5	4.9	4.7	4.9	4.6	
로컬푸드 판매	5.6	5.4	5.4	4.6	5.1	5.6	5.3	5.4	5.4	5.7	5.1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1	5.1	4.9	4.5	4.7	5.1	5.0	5.1	4.8	5.2	4.7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5.2	5.3	5.1	4.8	5.0	5.2	5.2	5.2	5.1	5.4	4.9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5.0	5.3	5.1	4.8	5.0	5.2	4.9	5.2	5.0	5.2	4.9	
평균	5.0	5.0	4.9	4.3	4.7	5.1	4.7	5.0	4.8	5.1	4.7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모든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70대 이상과 나머지 연령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적절한 물가수준',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충분한 소득', '로컬푸드 판매',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항목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4) 지역 간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이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읍·면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개인 교차 특성에 따른 만족도 분석

□ 성별·연령별 만족도 분석

○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년도 대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점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복지 평균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40대 이하(5.6점), 50대(5.6점), 60대(5.4점), 70대 이상(5.1점) 순이었다.
- 반면,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점수(5.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40대 이하 여성 연령층에서는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범위’에 관한 만족도가 평균 점수(5.1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 70대 이상 고령층 남성의 세부항목에 따른 점수를 살펴보면, ‘분만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 서비스 범위’ 항목의 점수가 평균 점수(5.1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분만의료 서비스’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중 필수 의료 항목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50대 연령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보건·복지 전략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발생했는데, 남성의 점수(6.2점)가 여성의 점수(5.7점)보다 높았다.
- 60대 연령층의 경우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0.3점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여성 모두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의 점수가 각각 6.0점, 6.1점으로 다른 항목 대비 가장 높았다.

〈표 4-6〉 성별·연령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00)	여성 (n=606)	남성 (n=276)	여성 (n=272)	남성 (n=327)	여성 (n=264)	남성 (n=190)	여성 (n=215)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2	5.9	6.3	6.2	6.0	6.1	5.4	5.3
	의료 서비스 범위	5.5	5.0	5.4	5.4	5.2	5.4	4.8	4.7
	의료 서비스 수준	5.6	5.2	5.4	5.4	5.1	5.4	4.7	4.7
	분만 의료 서비스	5.0	4.4	4.7	4.7	4.4	4.6	3.8	3.9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5.2	4.6	5.1	5.1	4.9	4.9	4.6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5.3	5.8	5.9	5.8	5.8	5.5	5.9
	아동 양육보호 지원	5.6	5.4	5.7	5.8	5.6	5.6	5.2	5.4
	취약계층 복지 지원	5.6	5.2	5.9	6.1	5.9	6.1	5.9	6.1
	농어작업 안전성(종사자만)	6.1	5.7	6.2	5.7	6.1	6.0	6.1	6.2
	평균	5.6	5.1	5.6	5.6	5.4	5.5	5.1	5.2

주 1) 보건·복지 전략의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2)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 점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응답 결과에 해당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전략에서 여성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4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만족도 차이가 0.9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남성의 교육·문화 평균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이하(5.6점), 50대(5.4점), 60대(5.2점), 70대 이상(4.7점) 순이었고, 여성의 만족도는 50대(5.6점), 60대(5.5점), 40대 이하(5.4점), 70대 이상(5.0점) 순이었다.
- 40대 이하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과 성별 집단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40대 이하 여성의 경우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의 점수가 다른 항목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남성의 경우 전체 연령층에서 '공교육 수준'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방과 후 교육 기회', 50대의 경우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60대의 경우 '공교육 수준', 70대 이상의 경우 '지역 향토문화 기회'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 성별·연령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00)	여성 (n=606)	남성 (n=276)	여성 (n=272)	남성 (n=327)	여성 (n=264)	남성 (n=190)	여성 (n=215)
교육 문화	공교육 수준	6.0	5.7	5.8	5.9	5.6	6.0	5.3	5.1
	방과 후 교육 기회	5.9	5.8	5.6	5.9	5.4	5.9	5.1	4.9
	평생교육 기회	5.4	5.2	5.3	5.6	5.1	5.4	4.8	5.1
	문화·여가 시설	5.5	5.4	5.3	5.3	4.9	5.2	4.3	4.7
	문화·여가 프로그램	5.3	5.2	5.1	5.3	4.9	5.1	3.9	4.6
	문화 공동체 활동	5.3	5.0	5.3	5.4	5.1	5.3	4.4	4.8
	지역 향토문화 기회	5.7	5.5	5.4	5.8	5.4	5.5	5.1	5.4
	평균	5.6	5.4	5.4	5.6	5.2	5.5	4.7	5.0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주기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0대 이하의 남성이 40~60대 여성 보다 평균 만족도 점수가 더 높고,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정주기반 전략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6.4점), 50대(6.8점), 60대(6.7점), 70대 이상(6.7점)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70대 이상(6.8점), 50대(6.7점), 60대(6.7점), 40대 이하(6.3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40대 이하와 50대 연령층의 만족도 격차가 성별에 따라 0.4점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적은 환경오염' 항목의 만족도 격차가 0.8점, 여성의 경우 '범죄 안전' 항목이 0.7점으로 나타나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 연령에 따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40대 이하 및 50대의 경우 '대중교통'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60대의 경우 '생활서비스' 항목이, 70대 이상의 경우 '다양한 외식 장소'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8〉 성별·연령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 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00)	여성 (n=606)	남성 (n=276)	여성 (n=272)	남성 (n=327)	여성 (n=264)	남성 (n=190)	여성 (n=215)
정주 기반	대중교통	5.4	5.1	5.9	5.9	6.0	6.0	5.6	5.8
	통신시설	7.0	7.1	7.4	7.3	7.4	7.3	7.2	7.4
	생활 인프라	6.5	6.4	7.0	6.9	6.9	7.0	7.2	7.3
	난방 인프라	6.3	6.4	6.2	6.4	6.3	6.4	6.1	6.5
	생활 서비스	6.1	5.9	5.9	6.1	5.6	5.8	5.3	5.2
	식자재 구입	6.6	6.5	6.4	6.4	6.0	5.9	5.4	5.3
	다양한 외식 장소	6.3	6.2	6.0	6.3	5.8	5.8	5.2	5.2
	주택 상태	6.3	6.3	6.7	6.9	6.6	6.6	6.5	6.5
	교통안전	6.1	6.1	6.7	6.7	6.8	6.8	7.0	7.2
	여유로운 주변환경	6.7	6.7	7.3	7.1	7.2	7.2	7.5	7.4
	조용한 주변환경	6.5	6.4	7.1	6.9	7.2	7.0	7.6	7.7
	자연재해 안전	6.4	6.3	7.0	6.9	7.0	7.1	7.4	7.4
	범죄 안전	6.6	6.4	7.2	7.1	7.1	7.1	7.5	7.7
	적은 환경오염	6.3	6.1	7.1	6.7	6.8	6.9	7.3	7.3
	정돈된 주변환경	6.3	6.4	6.9	6.9	7.0	7.0	7.2	7.3
	아름다운 자연·경관	6.5	6.8	7.3	7.0	7.1	7.1	7.2	7.4
	평균	6.4	6.3	6.8	6.7	6.7	6.7	6.7	6.8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의 만족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제·일자리 전략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5.0점), 50대(4.9점), 60대(4.8점), 70대 이상(4.4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일자리 전략의 평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4.8점), 50대(5.1점), 60대(4.9점), 70대 이상(4.3점)으로 50대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층이 가장 낮았다.
- 세부 여건 중 ‘일자리 충분성’ 항목은 다른 문항 대비 전체 연령층과 성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로 나타났다.
- 40대 이하 여성은 모든 세부 여건에서 40대 이하 남성보다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특히 ‘일자리 충분성’은 4.1점, ‘일자리 용이성’은 4.3점에 불과해 성별에 따른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 여성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확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4-9〉 성별·연령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 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00)	여성 (n=606)	남성 (n=276)	여성 (n=272)	남성 (n=327)	여성 (n=264)	남성 (n=190)	여성 (n=215)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5.0	4.3	4.7	4.9	4.5	4.7	4.0	3.9
	일자리 충분성	4.8	4.1	4.5	4.7	4.4	4.5	3.9	3.7
	충분한 소득	5.2	4.6	4.7	5.0	4.5	4.7	4.1	3.9
	적절한 물가수준	5.3	4.8	5.0	5.0	5.0	5.0	4.6	4.4
	일자리 지원	5.1	4.6	5.0	5.1	4.7	4.8	4.3	4.1
	로컬푸드 판매	5.7	5.6	5.4	5.5	5.4	5.5	4.9	4.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4	4.8	5.0	5.1	4.9	4.8	4.6	4.4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5.4	5.1	5.2	5.4	5.1	5.1	4.8	4.8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5.3	4.8	5.1	5.4	5.1	5.1	4.9	4.8
	평균	5.0	4.8	4.9	5.1	4.8	4.9	4.4	4.3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성별·직업군별 만족도 분석

○ 성별에 따라 직업군을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의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남성의 보건·복지 전략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5.2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6점, 주부·학생·퇴직·기타 5.5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5.1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3점, 주부·학생·퇴직·기타 5.5점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직군에 상관없이 ‘분만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저조했고,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항목에서는 남성의 농림어업 종사자 대비 나머지 직업군 간 만족도 격차가 0.9점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10〉 성별·직업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2)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7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53)	농림어업 (n=366)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04)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387)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6	6.4	6.4	5.3	6.1	6.2
	의료 서비스 범위	4.8	5.6	5.5	4.7	5.2	5.4
	의료 서비스 수준	4.8	5.6	5.4	4.8	5.3	5.4
	분만 의료 서비스	4.0	5.1	4.6	3.9	4.5	4.7
	신속한응급 의료 서비스	4.4	5.4	5.3	4.5	4.9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5.7	5.7	5.6	5.5	5.8
	아동 양육보호 지원	5.4	5.7	5.6	5.2	5.5	5.8
	취약계층 복지 지원	6.0	5.7	5.7	5.9	5.5	5.7
	농어작업 안전성	6.1	-	-	6.0	-	-
	평균	5.2	5.6	5.5	5.1	5.3	5.5

주: 농림어업 종사자의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평균은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는 직업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교육·문화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4.9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6점, 주부·학생·퇴직·기타 5.3점으로 나타나 비농림어업 직업군에서 가장 높았다.
-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4.9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4점, 주부·학생·퇴직·기타 5.7점으로 나타나 기타 직업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세부 여건 중 남성의 경우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서 직업군 간 격차가 최대 1.1점, 여성의 경우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서 직업군 간 격차가 최대 1.0점으로 가장 컸다.

〈표 4-11〉 성별·직업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2)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7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53)	농림어업 (n=366)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04)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387)
교육 문화	공교육 수준	5.4	6.0	5.7	5.3	5.8	6.0
	방과 후 교육 기회	5.2	5.9	5.7	5.1	5.8	6.0
	평생교육 기회	4.8	5.5	5.1	4.9	5.3	5.6
	문화·여가 시설	4.5	5.5	5.4	4.6	5.4	5.6
	문화·여가 프로그램	4.3	5.4	5.0	4.5	5.2	5.5
	문화 공동체 활동	4.8	5.4	5.0	4.9	5.1	5.3
	지역 향토문화 기회	5.2	5.6	5.6	5.3	5.5	5.9
	평균	4.9	5.6	5.3	4.9	5.4	5.7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종사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 남성의 정주기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6.7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6.5점, 주부·학생·퇴직·기타 6.5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6.6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6.5점, 주부·학생·퇴직·기타 6.6점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과 직업군에 따라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5.4점), 여성(5.2점) 모두 '생활 서비스' 항목이 가장 낮았다. 한편 비농림어업 직업군에 해당 되거나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대중교통'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12〉 성별·직업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2)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7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53)	농림어업 (n=366)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04)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387)
정주 기반	대중교통	5.6	5.8	5.5	5.7	5.4	5.5
	통신시설	7.4	7.1	7.3	7.2	7.1	7.4
	생활 인프라	7.0	6.7	6.8	6.9	6.7	6.8
	난방 인프라	6.0	6.4	6.1	6.1	6.4	6.7
	생활 서비스	5.4	6.1	6.1	5.2	6.0	6.1
	식자재 구입	5.6	6.6	6.5	5.4	6.4	6.4
	다양한 외식 장소	5.4	6.3	6.1	5.3	6.3	6.3
	주택 상태	6.7	6.4	6.4	6.5	6.5	6.6
	교통안전	6.9	6.3	6.4	6.9	6.3	6.4
	여유로운 주변환경	7.5	6.8	7.0	7.4	6.9	6.9
	조용한 주변환경	7.5	6.6	6.9	7.3	6.6	6.6
	자연재해 안전	7.1	6.7	6.7	7.1	6.6	6.7
	범죄 안전	7.4	6.8	6.9	7.4	6.7	6.7
	적은 환경오염	7.1	6.5	6.7	7.1	6.4	6.4
	정돈된 주변환경	7.2	6.5	6.6	7.1	6.6	6.7
	아름다운 자연·경관	7.3	6.8	6.7	7.2	6.9	7.0
	평균	6.7	6.5	6.5	6.6	6.5	6.6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업군의 점수가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 남성의 경제·일자리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4.7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2 점, 주부·학생·퇴직·기타 4.6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4.6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4.9점, 주부·학생·퇴직·기타 4.7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여건 중 만족도 수준이 비슷한 농림어업 직군에서도 ‘일자리 용이성’ 및 ‘일자리 충분성’ 등 구직 활동에 관한 여건의 남성 만족도가 여성과 같거나 다소 높았고, 비농림어업 직군에서는 구직 관련 성별 간 격차가 더욱 컸다. 따라서 여성 비농림어업 직군의 구직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4-13〉 성별·직업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2)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7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53)	농림어업 (n=366)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04)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387)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4.3	5.0	4.0	4.3	4.7	4.1
	일자리 충분성	4.2	4.8	4.0	4.1	4.4	4.0
	충분한 소득	4.4	5.1	4.3	4.4	4.8	4.5
	물가 수준 적절성	4.9	5.2	4.8	4.9	4.8	4.7
	일자리 지원	4.6	5.1	4.3	4.4	4.8	4.6
	로컬푸드 판매	5.3	5.6	5.2	4.9	5.6	5.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4.8	5.2	5.1	4.5	4.9	5.0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5.1	5.3	5.1	4.9	5.1	5.2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5.1	5.3	5.1	4.9	5.0	4.8
	평균	4.7	5.2	4.6	4.6	4.9	4.7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군별·연령별 만족도 분석

○ 직업군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상보다 비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농림어업 직업군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농림어업 직업군의 경우 50대와 70대가 각각 5.7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대와 60대의 점수가 각각 5.9점으로 가장 높았다.
- 직업군에 따라 연령대 격차를 살펴보면,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만족도 점수(5.2점)와 50~6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점수(5.9점)의 격차가 0.7점으로 연령층에 따른 격차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14〉 직업군별·연령별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91)	50대 (n=161)	60대 (n=294)	70대 이상 (n=282)	40대 이하 (n=724)	50대 (n=313)	60대 (n=211)	70대 이상 (n=34)	40대 이하 (n=291)	50대 (n=74)	60대 (n=86)	70대 이상 (n=89)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8	5.6	5.7	5.0	6.1	6.5	6.2	5.9	6.0	6.8	7.0	6.1
	의료 서비스 범위	4.6	4.8	5.0	4.4	5.3	5.6	5.4	5.6	5.2	5.7	5.9	5.6
	의료 서비스 수준	5.1	5.0	5.0	4.4	5.4	5.5	5.4	5.7	5.2	5.8	5.7	5.5
	분만 의료 서비스	4.4	4.2	4.1	3.6	4.8	4.9	4.9	4.6	4.6	5.1	4.7	4.4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3	4.5	4.4	4.5	5.0	5.3	5.3	5.4	4.8	5.4	5.6	6.0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4	5.6	5.7	5.5	5.4	5.9	5.7	6.5	5.3	6.3	6.1	6.2
	아동 양육 보호 지원	5.3	5.3	5.5	5.1	5.5	5.9	5.6	5.4	5.5	6.1	6.0	5.9
	취약계층 복지 지원	5.8	6.0	6.0	5.8	5.4	6.0	5.8	6.1	5.3	6.1	6.1	6.5
	농어작업 안전성	5.9	6.0	6.1	6.2	-	-	-	-	-	-	-	-
	평균	5.2	5.2	5.3	4.9	5.4	5.7	5.6	5.7	5.2	5.9	5.9	5.8

주: 농림어업 종사자의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 평균은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중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농림어업 직업군의 경우 40대 이하의 연령층의 만족도가 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농림어업의 경우 50대의 만족도가 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군의 경우 60대의 만족도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대 이상 연령층의 점수(4.6점)는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동일 연령층의 만족도 점수(5.6점)와 1.0점의 격차가 나타나 타 연령층 대비 직업군 간 격차가 가장 컸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대 이상 연령층의 세부 항목에 따른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점수가 3.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15〉 직업군별·연령별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91)	50대 (n=161)	60대 (n=294)	70대 이상 (n=282)	40대 이하 (n=724)	50대 (n=313)	60대 (n=211)	70대 이상 (n=34)	40대 이하 (n=291)	50대 (n=74)	60대 (n=86)	70대 이상 (n=89)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5.8	5.2	5.5	5.1	5.9	6.0	5.9	4.8	5.7	6.4	6.4	5.7
	방과 후 교육 기회	5.6	5.1	5.3	4.9	5.8	6.0	5.8	5.0	5.9	6.2	6.3	5.5
	평생교육 기회	4.8	5.0	5.0	4.7	5.4	5.6	5.3	4.9	5.2	5.8	5.9	5.9
	문화·여가 시설	4.8	4.7	4.7	4.2	5.5	5.6	5.3	5.2	5.5	5.7	6.0	5.3
	문화·여가 프로그램	4.8	4.7	4.6	3.9	5.3	5.5	5.1	4.8	5.3	5.4	5.7	5.1
	문화 공동체 활동	5.0	5.2	5.1	4.3	5.2	5.5	5.2	5.2	5.1	5.2	5.5	5.4
	지역 향토 문화 기회	5.5	5.3	5.4	4.9	5.6	5.7	5.4	5.6	5.6	5.9	5.8	6.2
	평균	5.2	5.0	5.1	4.6	5.5	5.7	5.4	5.1	5.5	5.8	6.0	5.6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모든 직업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주기반에 대한 평균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농림어업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층이 올라감에 따라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50대의 연령층 점수(6.8점)가 60대의 점수(6.6점)보다 다소 높았다.
- 직업군에 따른 연령별 세부 항목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직업군의 경우 ‘생활 서비스’ 항목이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비농림어업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대중교통’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60대는 ‘생활 서비스’, 70대 이상의 경우 ‘식자재 구매’ 항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고, 기타 직업군도 마찬가지로 50대 이하의 경우 ‘대중교통’이 60대는 ‘대중교통’, ‘생활 서비스’가, 70대 이상은 ‘다양한 외식 장소’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4-16〉 직업군별·연령별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91)	50대 (n=161)	60대 (n=294)	70대 이상 (n=282)	40대 이하 (n=724)	50대 (n=313)	60대 (n=211)	70대 이상 (n=34)	40대 이하 (n=291)	50대 (n=74)	60대 (n=86)	70대 이상 (n=89)	
정주 기반	대중교통	5.5	5.6	5.9	5.5	5.3	6.0	5.9	5.9	5.0	6.1	6.2	6.2
	통신시설	7.3	7.3	7.4	7.2	7.0	7.3	7.1	7.4	7.2	7.6	7.7	7.5
	생활 인프라	6.7	6.8	6.9	7.2	6.5	7.0	6.7	7.4	6.4	7.2	7.3	7.5
	난방 인프라	6.1	5.6	6.3	6.1	6.4	6.6	6.0	6.1	6.4	6.5	7.0	6.8
	생활 서비스	5.5	5.5	5.5	4.9	6.1	6.2	5.8	5.8	6.0	6.3	6.2	6.0
	식자재 구매	5.9	5.8	5.7	5.1	6.6	6.7	6.1	5.6	6.5	6.5	6.5	6.1
	다양한 외식 장소	5.7	5.5	5.5	5.0	6.3	6.5	5.9	5.7	6.3	6.5	6.3	5.8
	주택 상태	6.5	6.7	6.7	6.5	6.3	6.8	6.5	6.1	6.2	6.9	6.8	6.8
	교통안전	6.7	6.8	6.8	7.1	6.1	6.6	6.6	6.8	5.9	6.7	7.0	7.2
	여유로운 주변환경	7.3	7.4	7.3	7.6	6.7	7.1	6.9	6.8	6.6	7.3	7.4	7.2
	조용한 주변환경	7.2	7.1	7.3	7.7	6.4	6.9	6.8	7.6	6.3	7.0	7.1	7.3
	자연재해 안전	6.8	6.9	7.0	7.4	6.3	7.0	7.0	7.6	6.3	6.9	7.2	7.3
	범죄 안전	7.1	7.3	7.3	7.6	6.5	7.0	6.9	7.5	6.4	7.0	7.1	7.6
	적은 환경오염	6.8	7.1	6.9	7.4	6.2	6.8	6.8	7.2	6.1	6.7	7.2	7.1
	정돈된 주변환경	7.0	7.0	7.1	7.3	6.3	6.8	6.8	7.3	6.2	7.0	7.0	7.3
	아름다운 자연·경관	7.3	7.1	7.2	7.3	6.6	7.2	6.9	7.5	6.7	7.1	7.2	7.3
	평균	6.6	6.6	6.7	6.7	6.3	6.8	6.6	6.8	6.3	6.8	6.9	6.9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직업군에 따라 연령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를 제외하고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이 농림어업 및 기타 직업군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어업 직업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특히 7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의 일자리 용이성(3.8점), 일자리 충분성(3.7점) 점수가 비농림어업 직업군과 비교해 구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 직업군과 연령층에 따라 경제·일자리 세부 항목의 점수를 살펴보면, ‘일자리 충분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특히, 농림어업 직업군에 해당하는 70대 이상의 연령층과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40대 이하,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각각 3.7점, 3.9점, 3.8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어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표 4-17〉 직업군별·연령별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91)	50대 (n=161)	60대 (n=294)	70대 이상 (n=282)	40대 이하 (n=724)	50대 (n=313)	60대 (n=211)	70대 이상 (n=34)	40대 이하 (n=291)	50대 (n=74)	60대 (n=86)	70대 이상 (n=89)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4.9	4.7	4.4	3.8	4.8	4.9	4.9	5.3	3.9	4.6	4.4	3.9
	일자리 충분성	4.5	4.6	4.3	3.7	4.6	4.7	4.7	4.4	3.9	4.3	4.3	3.8
	충분한 소득	4.8	4.8	4.5	3.9	5.0	4.9	4.8	5.4	4.6	4.7	4.4	3.9
	적절한 물가수준	5.5	4.9	5.1	4.4	5.0	5.0	5.0	4.8	4.8	5.1	4.6	4.5
	일자리 지원	4.9	4.9	4.7	4.1	5.0	5.1	4.8	5.0	4.5	4.9	4.7	4.2
	로컬푸드 판매	5.6	5.4	5.4	4.5	5.6	5.6	5.5	5.5	5.6	5.0	5.5	4.6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3	4.8	4.8	4.3	5.1	5.2	5.0	5.1	5.0	5.0	5.0	5.1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지원	5.4	5.2	5.1	4.6	5.3	5.3	5.1	4.9	5.1	5.4	5.2	5.2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지원	5.5	5.2	5.0	4.7	5.1	5.3	5.2	4.8	4.7	5.2	5.2	5.1
	평균	5.2	4.9	4.8	4.2	5.1	5.1	5.0	5.0	4.7	4.9	4.8	4.5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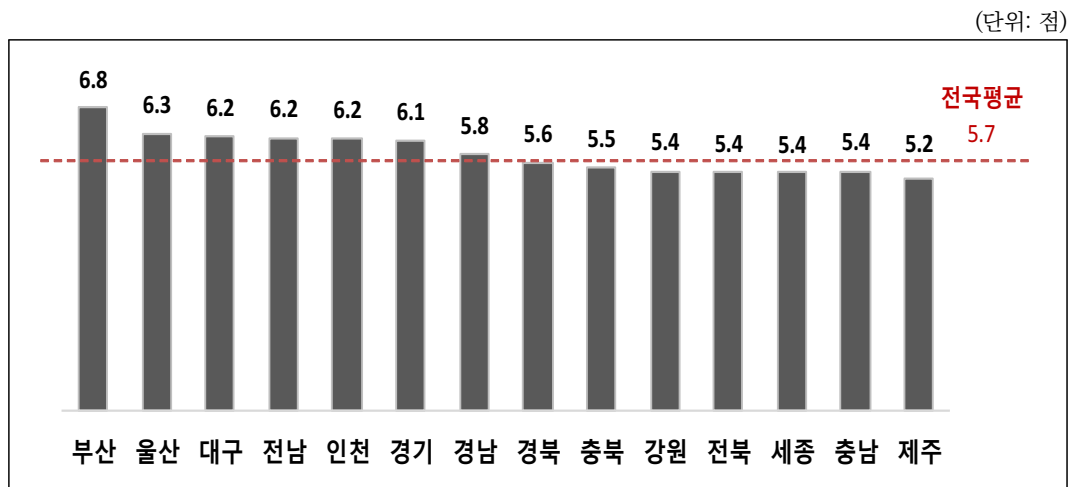
3.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

3.1. 시·도별 만족도 분석¹⁸⁾

○ 4대 전략 만족도가 농어촌 지역의 전국 평균인 5.7점보다 높은 시·도는 7개 지역이고, 7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6.8점), 울산(6.3점), 대구(6.2점), 전남(6.2점), 인천(6.2점), 경기(6.1점), 경남(5.8점)에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5.6점)과 충북(5.5점), 강원(5.4점), 전북(5.4점), 세종(5.4점), 충남(5.4점), 제주(5.2점)지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그림 4-1〉 시·도별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 평균 만족도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¹⁸⁾ 17개 특·광역시·도 중 농어촌 지역이 없는 서울, 대전, 광주 지역은 제외하였음. 시·도별 세부 여건의 전체 만족도 점수 도출 결과는 〈부록 3〉에 수록하였음.

○ 농어촌 지역 4대 전략별 점수는 정주기반(6.6점), 보건복지(5.4점), 교육문화(5.4점), 경제·일자리(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은 교육·문화, 정주기반, 제주는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전남은 경제·일자리, 충남은 정주기반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한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속한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18〉 삶의 질 정책 전략 및 시·도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전략 평균
부산	6.9	6.7	7.4	5.7	6.8
대구	6.2	6.1	6.9	5.1	6.3
인천	6.0	5.8	7.2	4.8	6.2
울산	5.9	5.9	6.8	5.5	6.2
세종	5.7	7.0	6.6	4.8	6.2
경기	5.8	5.9	6.7	5.4	6.1
강원	5.5	5.2	6.9	4.4	5.8
충북	4.9	5.1	6.7	4.4	5.6
충남	5.1	5.2	6.0	5.1	5.5
전북	5.0	5.1	6.2	4.4	5.4
전남	4.9	4.8	6.4	4.3	5.4
경북	4.8	4.7	6.0	5.2	5.4
경남	4.9	4.9	6.1	4.9	5.4
제주	4.7	4.9	6.2	4.3	5.2
전국	5.4	5.4	6.6	4.8	5.7

주 1) 전략별 만족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2) 읍·면 지역이 없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분석¹⁹⁾

○ 농어촌 지역을 읍 지역과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4대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9점, 면 지역 5.3점으로 0.6점의 만족도 격차가 나타났다.
- 읍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는 면 지역과 비교해 각각 0.8점, 0.7점, 0.5점 높았고, 경제·일자리 전략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읍 지역이 0.4점 높았다.

〈표 4-19〉 삶의 질 정책 전략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전체 평균
읍 지역	5.8	5.7	6.8	5.1	5.9
면 지역	5.0	5.0	6.3	4.7	5.3
읍·면 차이 (읍-면)	0.8	0.7	0.5	0.4	0.6

주 1) 읍·면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읍·면 차이는 '읍-면'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¹⁹⁾ 읍·면 지역 비교에서는 '농어작업 안전성', '여성농업인 지원' 등 농어업인, 농어촌 지역 대상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도·농 비교 시 평균값과는 차이가 있다.

○ 보건·복지 전략의 읍·면 지역 간 주민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 관련 여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 안에서도 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읍·면 지역별 보건·복지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8점, 면 지역 5.0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각각 1.1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 전략 중 보건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가 1.0점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지만, 특히 면 지역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	전체 평균
읍 지역	6.6	5.8	5.8	5.0	5.4	6.0	5.9	5.9	6.1	5.8
면 지역	5.5	4.7	4.8	4.1	4.5	5.3	5.2	5.6	6.1	5.0
읍·면 차이 (읍-면)	1.1	1.1	1.0	0.9	0.8	0.6	0.7	0.4	0.0	0.8

주 1) 읍·면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읍·면 차이는 ‘읍-면’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농어작업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여건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주민과 비교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별 교육·문화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7점, 면 지역 5.0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 중 ‘문화·여가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1.0점으로 면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4-21〉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읍 지역	6.1	6.1	5.6	5.7	5.6	5.4	5.8	5.7
면 지역	5.4	5.3	5.0	4.7	4.6	4.8	5.2	5.0
읍·면 차이 (읍-면)	0.7	0.8	0.7	1.0	1.0	0.6	0.6	0.7

주 1) 읍·면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읍·면 차이는 ‘읍-면’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모든 문항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여건은 대체로 면 지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주기반 중 ‘식자재 구입’과 ‘다양한 외식 장소’, ‘생활 서비스’ 여건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지역별 정주기반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6.8점, 면 지역 6.3점으로 조사되었다.
-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 중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생활 서비스’ 등 일상 생활 여건과 관련된 항목의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1.2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2〉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 인프라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주택상태	전체 평균
읍 지역	5.9	7.5	7.1	6.8	6.5	6.9	6.6	6.7	6.8
면 지역	5.3	7.0	6.5	5.9	5.3	5.6	5.4	6.3	6.3
읍·면 차이 (읍-면)	0.6	0.5	0.5	0.9	1.2	1.4	1.3	0.4	0.5
구분	교통안전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자연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주변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	전체 평균
읍 지역	6.6	7.0	6.8	6.9	7.0	6.7	6.9	7.1	6.8
면 지역	6.5	7.0	6.9	6.7	6.9	6.6	6.7	6.8	6.3
읍·면 차이 (읍-면)	0.2	0.0	-0.1	0.3	0.1	0.1	0.2	0.3	0.5

주 1) 읍·면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읍·면 차이는 ‘읍·면’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교통안전’, ‘여유로운 주변환경’, ‘조용한 주변환경’, ‘범죄 안전’, ‘적은 환경오염’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의 읍·면 지역 간 평균 만족도 격차가 타 전략 대비 가장 적었고, 읍 지역 대비 면 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경제·일자리 전략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1점, 면 지역 4.7점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일자리 항목 중 ‘일자리 충분성’, ‘일자리 용이성’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23〉 경제·일자리 전략 세부 항목 및 읍·면 지역 유형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적절한 물가수준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전체 평균
읍 지역	4.7	4.5	4.9	5.1	4.9	5.7	5.2	5.4	5.2	5.1
면 지역	4.4	4.2	4.5	4.8	4.6	5.1	4.7	4.9	4.9	4.7
읍·면 차이 (읍-면)	0.3	0.4	0.4	0.3	0.3	0.6	0.5	0.5	0.3	0.4

주 1) 읍·면 차이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 읍·면 차이는 ‘읍-면’ 방식으로 산출함.

3)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모든 문항의 t값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5

결론

1. 조사 결과 요약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대 전략 평균 만족도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 만족도’ 항목의 평균 만족도는 농어촌(6.4점)이 도시(6.2점)보다 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웰빙’ 만족도는 농어촌(6.4점)이 도시(5.8점)보다 0.5점, ‘공동체 및 지역사회’는 농어촌(5.9점)이 도시(5.3점)보다 0.5점 높게 나타났다.
 - 4대 전략 평균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전략의 경우 도·농 간 격차가 1.4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교육·문화 전략은 0.9점, 정주기반 전략은 0.6점, 경제·일자리 전략은 0.4점의 순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지역에 따라 약간의 등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 중 ‘현재 행복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 인식’은 도시 지역 점수가 낮아졌고, 농어촌 지역 점수가 개선되어 도·농 격차가 심화되었다. 한편,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항

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농 간 차이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웰빙’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년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어제의 근심/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년도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모두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지역 소속감’,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항목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개선되었고, 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항목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소폭 개선되었다.

○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는 ‘보건·복지’, ‘정주기반’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 4대 전략별 도·농 간 만족도 격차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전략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정주기반’의 격차는 감소하였다. 특히 연도별 격차가 등락을 반복했던 경제·일자리 전략은 전년도의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의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올해에는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 전략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에서 만족도 격차가 컸는데, 특히 ‘분만의료 서비스’ 항목에서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교육·문화 전략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여가 시설’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대중교통’ 항목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자재 구입’, ‘생활 서비스’, ‘다양한 외식 장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여전히 만족도 격차가 크게 유지되고 있었다.
-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는 ‘일자리 충분성’ 항목의 점수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활동과 관련된 ‘충분한 소득’,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점수 격차가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업, 성별, 읍·면 지역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 4대 전략별 만족도는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 전략의 의료 서비스 관련 만족도의 경우 70대 이상과 나머지 연령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교육·문화 전략 역시 70대 이상 고령층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나머지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았고 차이가 두드러졌다.
-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연령층을 제외하고, 50대, 60대, 70대 이상 고령 연령층 모두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 직업군에 따른 만족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70대 이상의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다.
-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략은 없었으나, 교육·문화 전략을 제외하고 모든 전략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층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특히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는 70대 이상 고령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 지역에 따른 전략별 만족도 차이에서는 보건·복지 전략에서 읍·면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에서 만족도 격차가 1.0점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4대 전략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아 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5-1〉 주요 조사 결과 요약

구분	문항	주요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는 5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그 결과 농어촌(6.4점)의 점수가 도시(6.2점)보다 높음
	주관적 웰빙 만족도	• 주관적 웰빙 만족도는 6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그 결과 농어촌(6.4점)의 점수가 도시(5.8점)보다 높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7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 그 결과 농어촌(5.9점)의 점수가 도시(5.3점)보다 높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만족도 (도·농비교)	4대 전략별 만족도	• 4대 전략별 만족도는 도시(6.3점)의 점수가 농어촌(5.5점)보다 높음 • 도·농 간 격차는 보건·복지 전략(1.4점), 교육·문화(1.0점), 정주기반(0.5점), 경제·일자리(0.4점) 순임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 보건·복지 전략은 9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는데,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도시(6.8점)가 농어촌(5.4점)보다 높음 •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세부 항목은 '불안의료 서비스'(2.1점)임
	교육·문화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 교육·문화 전략은 7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는데,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도시(6.3점)가 농어촌(5.4점)보다 높음 •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세부 항목은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각 1.3점)임
	정주기반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 정주기반 전략은 16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는데,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도시(7.0점)가 농어촌(6.6점)보다 높음 •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세부 항목은 '식자재 구입'(1.5점)임
	경제·일자리 전략 세부 항목별 도·농 간 만족도	• 경제·일자리 전략은 9개 세부 항목 만족도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는데,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도시(5.2점)가 농어촌(4.8점)보다 높음 •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세부 항목은 '일자리 충분성'(0.7점)이었음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 도·농 주민의 4대 전략별 중요도는 같은 우선순위를 보임 • 도시의 경우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7.2점), 정주기반(7.2점), 교육 및 문화(6.9점), 경제·일자리(6.6점) 순임 • 농어촌도 같은 패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6.8점), 정주기반(6.8점), 교육 및 문화(6.5점), 경제·일자리(6.4점) 순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별 중요도 및 만족도	• 도시 주민의 경우 경제·일자리 전략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주기반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가장 높음 • 농어촌 주민의 경우 정주기반 전략의 만족도만 높고, 이외 전략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주의향에 따른 정주 만족도 (도·농비교)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 이주 의향이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정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도시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전반적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 사회'(각 0.7점)에서 크게 발생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1.2점)에서 크게 발생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 농어촌 지역 주민 중 34.7%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59.8%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농어촌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직장이나 일자리(34.0%)' 이 가장 많고, 도시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주택문제(28.3%)'가 가장 많음

(계속)

구분	문항	주요 결과
인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정주민족도 (농촌 중심)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은 40대 이하, 성별은 여성일 때 만족도가 더 낮음 • 직업군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때, 주관적 웰빙 점수가 더 높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관한 만족도가 높음
	성별·연령에 따른 전략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전략)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며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연령층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교육·문화 전략) 남성·여성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임 • (정주기반 전략) 남성은 50대까지 만족도 점수가 향상하지만 60대부터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성은 40대 이하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음 • (경제·일자리 전략)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여성의 경우 50대까지는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지만, 그 이후 하락함
	성별·직업에 따른 전략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전략) 남성과 여성 모두 농림어업에 종사할 때,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특히, 농림어업 종사하는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교육·문화 전략) 남성은 비농림어업(사무직 등)에 종사할 때 만족도 점수(5.6점)가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주부·학생·퇴직·기타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점수(5.7점)가 가장 높음 • (정주기반 전략) 남성은 농림어업에 종사할 때 만족도 점수(6.7점)가 가장 높고, 여성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주부·학생·퇴직·기타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점수(각 6.6점)가 높음 • (경제·일자리 전략) 남성은 비농림어업(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만족도 점수(5.2점)가 가장 높고, 여성도 비농림어업(사무직 등)에 종사할 때 만족도 점수(4.9점)가 가장 높음
	직업군별·연령에 따른 전략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비농림 어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더 높음 • (보건·복지 전략)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50~60대 연령이 가장 높음 • (교육·문화 전략) 기타 직업군에 해당하는 60대 연령이 가장 높음 • (정주기반 전략) 기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음 • (경제·일자리 전략)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40대 이하 가장 높음
	읍·면 거주지에 따른 전략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읍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5.9점)가 면 지역(5.3점) 보다 높음 • 보건·복지 전략의 격차(0.8점)가 가장 크고, 교육·문화(0.7점), 정주기반(0.5점), 경제·일자리(0.4점) 순으로 격차가 발생

자료: 2024년 정주민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

2. 시사점

- 2024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따른 평균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 주민이 농어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개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주관적 웰빙 만족도’에서 도시 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소폭 개선된 것에 반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는 0.7점 이상 개선되어 도·농 간 격차가 2배 가까이 개선되었다.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올해에는 농어촌 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더욱 개선되어,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 만족도’ 점수 역시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 4대 전략 중 보건·복지 전략의 도·농 간 격차가 타 전략 대비 크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정주 만족도 조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4대 전략별 만족도에서 정주기반 전략의 격차는 줄어들고, 교육·문화 전략과 경제·일자리 전략의 격차는 지속적인 등락을 반복하며 격차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보건·복지 전략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보건·복지 전략은 과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전략이며, IPA 분석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가 낮아 타 전략에 비해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의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줄어든 채로 유지되고 있다. IPA 분석에서 농어촌 지역 정주기반 전략이 타 전략과 비교해 만족도가 높아 유지관리 영역에 포함되긴 하였으나, 도시의 만족도와 비교 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

통’, ‘생활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불편함이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은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 전략과 교육·문화 전략을 함께 살펴볼 때, ‘분만 의료 서비스’,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출산 및 문화생활 영위 여건에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에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료와 문화·여가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정주 만족도가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주 만족도와 이주 의향이 인구 유출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4대 전략별 만족도의 모든 정주 만족도 항목에서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주기반 전략에서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정주기반 여건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정주 만족도에 있어서 도·농 간 만족도 격차도 존재하지만, 농어촌 지역 내 읍과 면 사이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내 불균형 해소와 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 관련 정주 만족도에 있어서는 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나²⁰⁾, 4대 전략 만족도에서는 모든 전략에서 면 지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주기반 전략에서는 읍·면 간 만족도 격차가 도·농 간 격차와 비슷하게 나타난 만큼 면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²⁰⁾ 2024년 기준 주관적 웰빙 평균 만족도는 읍부 6.3점, 면부 6.5점이며, 공동체 및 지역사회 평균 만족도는 읍부 4.6점, 면부 4.8점이다.

- 특히 면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 지리적 여건 등 도시 및 읍 지역에 비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사회적·지리적 특성이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2024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ID

2024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2024091301-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셔서 얻은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10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리서치앤리서치
	연구담당자: 한이철 연구위원(061-820-2304) 이진 연구원(061-820-2313)	조사담당자: 조선미 이사(02-3484-3053) 연구담당자: 업승법 전임연구원(02-3484-3076)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일시	월	일	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ID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확인

ADM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동 지역 2) 읍 지역 3) 면 지역
LOC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상세 지역은 어디입니까?	광역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상세지역 시/군/구: () 읍/면/동: () 리(행정리): () ※ 행정구역명까지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 입실 관촌 읍치 X, 입실군 관촌면 읍치리 O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AGE	귀하는 올해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만 19세 미만 조사 종료 1) 19-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69세 6) 70세 이상

- 1 -

PART A. 정주 여건 및 만족도

※ Q01~Q10 문항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지역(시·군)의 생활여건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Q01. 다음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생각(주관적 웰빙)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현재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0-1-2-3-4-5-6-7-8-9-10
2. 나는 어제 행복했다	0-1-2-3-4-5-6-7-8-9-10
3. 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했다	0-1-2-3-4-5-6-7-8-9-10
4. 나는 어제 우울했다	0-1-2-3-4-5-6-7-8-9-10
5. 나는 요즘 나의 활동(일, 생활, 여가)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0-1-2-3-4-5-6-7-8-9-10
6.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0-1-2-3-4-5-6-7-8-9-10

Q02.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전반적 만족도)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현재 행복하다	0-1-2-3-4-5-6-7-8-9-10
2. 나는 현재 건강하다	0-1-2-3-4-5-6-7-8-9-10
3.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0-1-2-3-4-5-6-7-8-9-10
4.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1-2-3-4-5-6-7-8-9-10
5.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1-2-3-4-5-6-7-8-9-10

Q03.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공동체에 대한 생각(공동체 및 지역사회)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0-1-2-3-4-5-6-7-8-9-10
2. 나는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신뢰한다	0-1-2-3-4-5-6-7-8-9-10
3. 나는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0-1-2-3-4-5-6-7-8-9-10
4. 나는 이웃과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0-1-2-3-4-5-6-7-8-9-10
5. 나는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당,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등)	0-1-2-3-4-5-6-7-8-9-10
6. 나는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0-1-2-3-4-5-6-7-8-9-10
7. 나는 거주 지역 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린다 (예: 네이버 밴드,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0-1-2-3-4-5-6-7-8-9-10

Q04.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2.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이 다양하다	0-1-2-3-4-5-6-7-8-9-10
3.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양호하다	0-1-2-3-4-5-6-7-8-9-10
4.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5.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7. 아동의 양육·돌봄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8.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9. (농어업 종사자만 응답) 농기계·어선 사고 등 농어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0-1-2-3-4-5-6-7-8-9-10

Q05.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2.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방과후학교, 학원 등)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3.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4.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5.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다	0-1-2-3-4-5-6-7-8-9-10
6. 동호회, 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0-1-2-3-4-5-6-7-8-9-10
7.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0-1-2-3-4-5-6-7-8-9-10

Q06.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정주기반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정주기반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2. 인터넷, TV, 휴대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3.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0-1-2-3-4-5-6-7-8-9-10
4. 도시가스, LPG 등 난방(또는 에너지)인프라가 양호하다	0-1-2-3-4-5-6-7-8-9-10
5. 목욕탕, 미용실, 세탁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6. 편의점, 마트 등에서 생필품,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0-1-2-3-4-5-6-7-8-9-10
7. 카페, 식당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게가 다양하다	0-1-2-3-4-5-6-7-8-9-10
8.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0-1-2-3-4-5-6-7-8-9-10
9.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10. 사람 또는 각종 시설물로 인해 혼잡하지 않고 여유롭다	0-1-2-3-4-5-6-7-8-9-10
11. 소음과 진동이 적어 조용하다	0-1-2-3-4-5-6-7-8-9-10
12. 마을, 거주지 주변이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13.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14.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고, 공기가 깨끗하다	0-1-2-3-4-5-6-7-8-9-10
15. 마을 환경(안길, 담장 등)이 깨끗하게 잘 정비·정돈되어 있다	0-1-2-3-4-5-6-7-8-9-10
16. 마을 주변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을 누릴 수 있다	0-1-2-3-4-5-6-7-8-9-10

Q07.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경제·일자리 분야 생활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경제·일자리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0-1-2-3-4-5-6-7-8-9-10
2. 다양한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3. 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0-1-2-3-4-5-6-7-8-9-10
4. 생필품의 물가수준이 적절하다	0-1-2-3-4-5-6-7-8-9-10
5. 일자리 알선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도와주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6.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7.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0-1-2-3-4-5-6-7-8-9-10
8. 다문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9. (읍면지역만 응답)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Q08.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정책영역(부문)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의료, 돌봄, 보육·육아, 사회안전망)	0-1-2-3-4-5-6-7-8-9-10
2. 교육 및 문화 (교육, 평생교육, 문화 여가)	0-1-2-3-4-5-6-7-8-9-10
3. 정주기반 (교통,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환경·경관)	0-1-2-3-4-5-6-7-8-9-10
4. 경제 일자리 (소득기반, 관광, 취·창업, 여성·다문화 일자리)	0-1-2-3-4-5-6-7-8-9-10

Q09.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주로 어디에서 활동(일, 생활, 여가 등)하셨습니다?

- 1) 거주하는 마을(행정리) 주변 2) 거주하는 읍면동 범위 3) 해당 시군 범위 4) 다른 시군까지 이동

Q10. 귀하께서는 향후 여건이 된다면 이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Q10-1, 2, 3으로 이동 2) 없다 ☞ Q11로 이동

Q10-1. (이주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주할 생각입니까?

- 1) 3년 이내 2) 5년 이내 3) 10년 이내 4) 10년 이후 5)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Q10-2. (이주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입니까?

- 1)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으로 2)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3) 현재 시군 내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및 동으로 4)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10-3. (이주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직장이나 일자리(농업 포함) 때문에 2) 주택 문제 때문에(주택 노후 등)
3) 자녀 교육 때문에 4) 의료서비스/건강 때문에
5) 기초생활서비스 때문에(생필품 구입 등) 6) 교통 때문에
7)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때문에 8) 자연환경 때문에
9) 안전문제 때문에(자연재해, 치안 등) 10) 기타 ()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특성

DQ01. 귀하께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 년

DQ02.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

- 1) 기혼 2) 미혼

DQ0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 포함)

-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재학 이상

DQ04.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시시오.

- 1) 농림어업 2) 자영업 3) 사무 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4) 생산/기능/노무직
- 5) 판매/영업직 6) 서비스직 7) 전문/기술직 8) 주부
- 9) 학생 10) 퇴직 11) 무직 12) 기타()

DQ04-1. (주부/학생/퇴직/무직 외 응답자만) 현재 귀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번기의 근무시간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재택근무 포함(가장 일상적 근무일 기준)

- 1) 하루 종일(오전 6~7시경부터 저녁 8시 이후까지) 2) 오전·오후(오전 8~9시 경부터 오후~6시까지)
- 3) 새벽(오전 4~5시 ~ 오전 9시 이전) 4) 반일(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후 12시 이후-오후 6시)
- 5) 저녁 또는 밤(오후 6시 이후-오전 5시 이전) 6) 기타()
- 7) 규칙적이지 않음/판단힘듦

DQ05. 귀하의 주된 일터(장소)는 현재 사시는 지역과 다른 지역(시군)입니까?

- 1) 예 2) 아니오

DQ06. 귀덕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DQ07. 귀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체크)

- 1) 귀농 2) 귀촌 3) 둘 다 아니다

※ 농림어업을 하려고 농촌지역(읍면 지역)으로 들어온 경우에 귀농에 해당합니다.

※ 농림어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농촌지역(읍면 지역)으로 들어온 경우에 귀촌에 해당합니다.

DQ08. 귀덕(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덧밭 등 취미농 제외)

- 1) 있다 2) 없다

DQ09. 귀하께서는 현재 사시는 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DQ09-1. (다른 거주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 1) 해당 시군의 농촌지역 2) 해당 시군의 도시지역 3) 다른 시군의 농촌지역 4)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

DQ10. 귀덕에서 동거하는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독신가구 ☞ DQ11 문항으로
- 2) 1세대 가구(부부) ☞ DQ11 문항으로
-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10-1번 문항으로
- 4)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10-1번 문항으로
- 5)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10-1번 문항으로
- 6) 기타() ☞ DQ10-1번 문항으로

DQ10-1. 귀덕에는 미성년(0~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DQ10-2번 문항으로 2) 없다 ☞ DQ11번 문항으로

DQ10-2. 미성년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복수응답)

- 1) 영유아 2) 초등학교 3) 중·고등학교 4) 기타()

DQ11. 귀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년간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응답해 주십시오.

- 1) 1,000만 원 미만 2) 1,000만 원~1,999만 원 3) 2,000만 원~2,999만 원
4) 3,000만 원~3,999만 원 5) 4,000만 원~4,999만 원 6) 5,000만 원~6,999만 원
7) 7,000만 원~9,999만 원 8) 1억 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20~2024년 도·농 정주 만족도 추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

(단위: 점)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7.7	7.7	7.7	7.5	5.7	6.3	6.1	6.3	6.0
	의료 서비스 범위	7.1	7.3	7.3	7.2	7.2	5.0	5.6	5.1	5.6	5.2
	의료 서비스 수준	6.9	7.2	7.2	7.1	7.1	5.1	5.7	5.3	5.6	5.2
	분만의료 서비스	6.7	7.0	6.8	6.7	6.6	4.4	5.2	4.3	4.6	4.5
	산후조리 서비스	-	-	6.4	-	-	-	-	4.0	-	-
	여성 출산 지원	-	-	6.2	-	-	-	-	4.4	-	-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7.3	7.0	7.1	6.8	5.2	5.9	5.2	5.3	4.9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6.8	6.5	6.6	6.4	5.5	6.0	5.6	5.6	5.6
	아동 양육·돌봄 지원	6.3	6.7	6.4	6.4	6.3	5.4	5.9	5.3	5.4	5.5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6.6	6.2	6.2	6.2	5.6	6.1	5.4	5.5	5.7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	6.5	-	-	-	-	5.9	-	-	-
	농어직업 안전성(농어업인만)	-	5.5	-	6.4	-	5.9	7.0	7.1	6.4	6.1
(평균)		6.8	7.0	6.8	6.9	6.8	5.2	5.8	5.1	5.5	5.4
교육 문화	공교육 수준	6.6	6.7	6.8	6.7	6.7	5.2	5.8	5.8	6.1	5.7
	방과 후 교육 기회	6.5	6.6	6.7	6.7	6.7	5.1	5.7	5.6	5.8	5.6
	평생교육 기회	6.1	6.3	6.2	6.1	6.3	4.7	5.4	5.1	5.5	5.3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1	6.3	5.9	5.8	-	4.7	5.4	4.7	5.2	-
	문화·여가 시설	6.2	6.5	6.6	6.4	6.5	4.6	5.4	5.2	5.5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6.2	6.2	6.3	6.1	6.3	4.4	5.2	5.0	5.4	5.0
	문화 공동체 활동	5.7	5.9	5.8	5.6	5.8	4.7	5.2	4.8	5.3	5.1
	향토문화 향유	5.7	-	-	-	-	4.9	-	-	-	-
	지역 향토 문화 기회	-	-	6.0	5.9	6.0	-	-	5.3	5.7	5.5
(평균)		6.1	6.4	6.3	6.2	6.3	4.8	5.4	5.2	5.6	5.4
정주 기반	대중교통	7.1	7.3	7.2	7.2	7.2	5.2	5.7	5.3	5.7	5.6
	통신시설	7.6	7.7	7.8	7.9	7.8	6.1	6.7	6.9	6.9	7.2
	생활 인프라	7.3	7.7	7.5	7.6	7.5	5.9	6.4	6.7	6.7	6.8
	난방 인프라	-	-	-	7.8	7.6	-	-	-	6.0	6.3
	난방 비용	-	-	6.4	6.2	-	-	-	5.5	5.3	-
	생활 서비스	7.3	7.6	7.3	7.3	7.3	5.6	6.2	5.8	6.0	5.8
	식자재 구입	-	-	7.6	7.6	7.7	-	-	6.3	6.4	6.2
	다양한 외식 장소	-	-	7.3	7.3	7.4	-	-	5.8	6.0	6.0
	주택 상태	6.7	7.0	7.0	7.0	6.9	5.9	6.4	6.2	6.3	6.5
	교통안전	6.5	6.8	6.7	6.7	6.6	6.0	6.4	6.2	6.3	6.5

(계속)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주 기반	여유로운 주변환경	-	-	-	-	6.6	-	-	-	-	7.0
	조용한 주변환경	-	-	-	-	6.2	-	-	-	-	6.9
	자연재해 안전	7.0	7.3	7.3	7.2	7.0	6.2	6.7	6.7	6.5	6.8
	응급차량 접근성	-	7.1	-	-	-	-	6.6	-	-	-
	범죄 안전	6.7	6.9	7.0	6.9	6.7	6.4	6.7	6.7	6.6	6.9
	적은 환경오염	6.6	6.8	6.9	6.9	6.5	6.1	6.4	6.4	6.4	6.7
	정돈된 환경·경관	6.6	6.9	6.9	6.9	6.7	6.2	6.6	6.5	6.6	6.8
	에너지 비용 절감	6.1	6.4	-	-	-	5.4	6.1	-	-	-
	아름다운 자연·경관	-	-	-	-	6.6	-	-	-	-	7.0
	(평균)	6.9	7.1	7.1	7.2	7.0	5.9	6.4	6.2	6.3	6.6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소득 기회)	5.6	5.7	5.1	4.8	5.0	4.5	5.2	4.4	4.8	4.5
	일자리 충분성	-	-	5.0	4.7	5.0	-	-	4.3	4.7	4.3
	충분한 소득	-	-	5.4	5.1	5.3	-	-	4.8	5.2	4.7
	적절한 물가수준	-	-	-	5.1	5.1	-	-	-	5.2	4.9
	경제여건 향상	5.3	5.6	-	-	-	4.6	5.3	-	-	-
	농외소득(농촌만)	-	-	-	-	-	5.0	5.6	-	-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5.3	-	-	-	-	-	-	-	-
	일자리 지원	5.5	5.6	5.3	5.1	5.4	4.7	5.3	4.6	5.0	4.8
	로컬푸드 판매	-	-	5.5	5.3	5.5	-	-	5.3	5.7	5.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	-	5.0	4.8	5.2	-	-	4.9	5.3	4.9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	-	-	-	4.8	5.4	-	-	-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	-	5.2	5.1	5.5	-	-	5.0	5.4	5.1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	-	-	-	-	-	-	4.9	5.4	5.1
(평균)	5.5	5.6	5.2	5.0	5.2	4.6	5.3	4.7	5.2	4.8	
표본 수(단위: 명)	793	738	855	1,597	1,000	2,219	2,445	2,370	2,503	2,650	

3. 2024년 4대 전략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보건·복지 전략 시·도 지역별 만족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이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농어직업 안전성 (농·어업인)
부산	7.5	7.1	7.0	6.7	6.2	6.9	6.8	6.6	5.0
대구	7.3	6.4	5.8	4.9	5.1	6.1	6.2	6.0	7.4
인천	5.5	5.3	5.6	5.1	5.5	6.4	6.1	6.1	6.3
울산	7.1	6.6	6.5	5.3	5.9	6.4	6.2	6.1	7.4
세종	5.3	4.7	4.5	4.5	4.7	5.0	4.7	5.0	5.4
경기	6.1	5.4	5.7	5.1	5.6	5.9	5.9	6.2	6.1
강원	5.7	4.7	4.9	3.9	5.2	5.4	5.1	5.6	6.3
충북	5.9	5.1	5.0	4.3	4.7	5.3	5.1	5.2	5.4
충남	5.4	4.7	5.0	4.3	4.0	5.1	5.3	5.4	5.4
전북	5.6	4.9	4.9	4.1	4.1	5.3	5.3	5.3	5.3
전남	6.6	5.9	5.9	5.3	5.6	5.9	5.9	6.0	6.5
경북	5.8	4.5	4.6	3.8	4.0	5.4	5.5	5.8	6.2
경남	5.9	5.3	5.1	4.4	5.8	6.0	5.6	6.0	7.2
제주	5.7	4.8	4.9	3.7	4.2	5.0	4.3	5.0	5.2
전국 평균	6.0	5.2	5.2	4.5	4.9	5.6	5.5	5.7	6.1

주: '농어직업 안전성' 항목은 농어촌 지역의 응답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n=828)의 결과만 기재하였으며, 특광역시외의 경우 표본이 30명 미만으로 지역 간 만족도 점수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단위: 점)

〈교육·문화 전략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문화 기회
부산	6.6	6.8	6.5	7.0	6.6	6.4	6.9
대구	6.6	6.6	5.8	5.9	5.5	5.2	5.3
인천	7.2	7.1	7.2	6.9	6.7	7.0	7.1
울산	6.2	6.2	5.8	6.2	6.0	6.0	6.3
세종	5.2	4.6	4.7	4.4	4.7	4.6	4.7
경기	6.1	6.1	5.9	5.8	5.8	5.8	6.0
강원	5.3	5.2	5.0	4.9	5.0	5.0	5.6
충북	5.5	5.3	4.9	5.1	5.0	5.0	5.4
충남	5.2	5.0	4.7	4.5	4.5	4.7	5.4
전북	5.7	5.2	4.7	4.3	4.2	4.3	5.0
전남	6.4	6.4	5.8	5.7	5.6	5.5	5.8
경북	5.6	5.8	5.2	5.0	4.6	4.7	4.9
경남	5.5	5.2	5.2	5.1	4.9	5.1	5.7
제주	5.4	4.9	4.5	4.8	4.6	4.9	5.1
전국 평균	5.7	5.6	5.3	5.2	5.0	5.1	5.5

〈정주기반 전략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대중 교통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 인프라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주택 상태	교통 안전	여유로운 주변 환경	조용한 주변 환경	자연 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주변 환경	아름다운 자연 경관
부산	6.8	8.1	7.8	8.0	7.4	7.8	7.4	7.5	7.1	7.5	7.1	7.2	7.2	7.3	7.3	7.5
대구	6.7	7.9	7.5	7.3	6.9	7.3	7.1	7.0	6.7	7.2	7.1	7.3	7.4	7.0	7.2	7.2
인천	5.0	6.6	6.6	6.5	6.4	6.2	6.4	6.8	6.0	7.2	7.2	6.3	6.8	7.5	7.6	7.5
울산	6.2	7.5	7.3	7.3	7.0	7.1	6.9	6.8	6.7	6.9	6.7	6.7	7.2	6.5	6.9	7.0
세종	5.8	7.4	5.5	6.0	5.3	4.8	5.3	5.9	6.0	6.3	6.2	6.7	6.5	6.2	6.3	6.0
경기	6.1	7.2	6.9	6.7	6.3	6.6	6.4	6.5	6.6	7.0	6.9	6.9	6.7	6.8	6.6	6.9
강원	4.3	7.2	6.6	5.3	5.2	5.9	5.3	6.0	6.1	7.1	6.8	7.0	7.1	6.6	6.5	6.9
충북	5.2	6.9	6.0	6.0	5.7	6.1	6.1	6.1	5.8	6.3	5.9	6.2	6.0	5.8	6.1	6.4
충남	4.9	6.5	6.2	5.8	4.9	5.5	5.4	6.1	6.4	7.0	6.8	6.3	6.6	6.0	6.4	6.4
전북	6.2	7.7	6.4	6.1	5.3	6.0	5.6	6.8	6.3	7.0	7.0	6.4	7.0	6.2	6.6	6.4
전남	6.2	7.0	6.7	6.5	6.4	6.6	6.3	6.6	6.6	7.1	7.0	6.8	7.0	7.0	7.0	7.4
경북	5.5	7.7	7.3	6.5	5.9	6.2	5.8	6.6	6.7	7.2	7.1	7.0	7.0	7.1	6.9	7.2
경남	5.7	7.3	7.4	6.7	5.9	6.1	6.0	6.8	7.1	7.3	7.1	7.4	7.6	7.1	7.3	7.4
제주	5.0	7.0	6.3	4.8	4.9	5.2	5.6	6.0	5.8	6.8	7.1	6.5	6.7	6.7	6.7	7.3
전국 평균	5.6	7.2	6.8	6.3	5.8	6.2	6.0	6.5	6.5	7.0	6.9	6.8	6.9	6.7	6.8	7.0

〈경제·일자리 전략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물가 수준 적절성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산업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민)
부산	5.5	5.3	5.6	6.2	5.7	5.9	5.9	5.9	5.5
대구	4.3	4.3	4.6	5.3	4.9	5.4	4.3	5.0	4.9
인천	4.5	4.4	4.6	4.6	4.8	5.1	5.4	5.5	5.2
울산	5.2	5.2	4.9	4.5	5.1	5.7	5.1	5.4	4.9
세종	5.2	5.1	5.3	5.4	5.0	5.3	5.0	5.7	5.3
경기	5.4	5.1	5.3	5.4	5.4	5.9	5.4	5.7	5.5
강원	4.2	3.7	4.4	4.0	4.3	4.8	4.7	5.0	5.2
충북	5.1	4.8	5.0	5.2	5.2	5.6	4.9	5.2	5.2
충남	4.2	4.3	4.8	5.1	5.0	5.5	5.1	5.1	5.0
전북	3.6	3.4	3.8	4.8	4.3	5.4	4.6	4.6	4.6
전남	5.4	5.2	5.4	5.4	5.3	6.2	5.6	5.7	5.7
경북	4.0	3.8	4.4	4.9	4.2	5.0	4.3	4.8	4.6
경남	4.0	3.9	4.0	4.4	4.3	4.7	4.7	4.9	4.7
제주	4.1	3.9	4.1	3.9	3.8	4.9	4.8	4.5	4.5
전국 평균	4.5	4.3	4.7	4.9	4.8	5.4	4.9	5.1	5.1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도·농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도시	6.0	0.6	-7.754	0.000
		농어촌	6.6			
	주관적 건강 인식	도시	5.9	0.6	-7.373	0.000
		농어촌	6.5			
	살고 있는 곳에서의 행복감	도시	6.3	0.3	-3.651	0.000
		농어촌	6.6			
마을 발전 전망	도시	6.2	-0.1	1.244	0.214	
	농어촌	6.1				
시·군 발전 전망	도시	6.3	-0.0	0.259	0.796	
	농어촌	6.3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도시	6.0	0.6	-6.958	0.000
		농어촌	6.5			
	어제의 행복 정도	도시	6.1	0.5	-5.556	0.000
		농어촌	6.6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도시	5.1	-0.7	7.282	0.000
		농어촌	4.4			
어제의 우울 정도	도시	4.1	-0.8	7.707	0.000	
	농어촌	3.3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도시	6.0	0.3	-4.010	0.000	
	농어촌	6.3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도시	6.0	0.4	-4.465	0.000	
	농어촌	6.3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도시	5.6	0.6	-7.587	0.000
		농어촌	6.2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도시	5.7	0.3	-3.618	0.000
		농어촌	6.0			
	이웃과의 관계	도시	5.9	0.6	-8.212	0.000
		농어촌	6.5			
	이웃간 도움	도시	5.2	1.0	-11.489	0.000
		농어촌	6.3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도시	4.3	0.8	-7.384	0.000	
	농어촌	5.1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도시	6.1	0.1	-1.768	0.077	
	농어촌	6.2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도시	4.6	0.1	-1.221	0.222	
	농어촌	4.7				

주 1) 도시 n=1,000명, 농어촌 n=2,650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전략별 만족도의 도·농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도시	7.5	-1.5	18.717	0.000
		농어촌	6.0			
	의료 서비스 범위	도시	7.2	-2.0	23.886	0.000
		농어촌	5.2			
	의료 서비스 수준	도시	7.1	-1.9	23.535	0.000
		농어촌	5.2			
	분만의료 서비스	도시	6.6	-2.1	23.899	0.000
		농어촌	4.5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도시	6.8	-1.8	21.344	0.000
		농어촌	4.9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도시	6.4	-0.7	9.631	0.000
		농어촌	5.6			
아동 양육보호 지원	도시	6.3	-0.8	10.281	0.000	
	농어촌	5.5				
취약계층 복지 지원	도시	6.2	-0.4	5.593	0.000	
	농어촌	5.7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도시	-	-	-	-	
	농어촌	6.1				
교육·문화	공교육수준	도시	6.7	-1.0	13.629	0.000
		농어촌	5.7			
	방과 후 교육 기회	도시	6.7	-1.1	13.846	0.000
		농어촌	5.6			
	평생교육 기회	도시	6.3	-1.0	12.895	0.000
		농어촌	5.3			
	문화·여가 시설	도시	6.5	-1.3	16.492	0.000
		농어촌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도시	6.3	-1.3	15.979	0.000
		농어촌	5.0			
	문화공동체 활동	도시	5.8	-0.7	8.623	0.000
		농어촌	5.1			
지역 향토문화 기회	도시	6.0	-0.4	5.660	0.000	
	농어촌	5.5				

주 1) 도시 n=1,000명, 농어촌 n=2,650명

2)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은 도시 지역 응답자 수(4명)가 매우 적어 t-검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어촌 지역 응답(828명)만 기재함.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도시	7.2	-1.6	18.750	0.000
		농어촌	5.6			
	통신시설	도시	7.8	-0.6	8.930	0.000
		농어촌	7.2			
	생활 인프라	도시	7.5	-0.7	9.243	0.000
		농어촌	6.8			
	난방 인프라	도시	7.6	-1.3	17.026	0.000
		농어촌	6.3			
	생활 서비스	도시	7.3	-1.4	18.226	0.000
		농어촌	5.8			
	식자재 구입	도시	7.7	-1.5	18.951	0.000
		농어촌	6.2			
	다양한 외식 장소	도시	7.4	-1.4	17.843	0.000
		농어촌	6.0			
	주택 상태	도시	6.9	-0.4	5.257	0.000
		농어촌	6.5			
	교통안전	도시	6.6	-0.1	0.692	0.489
		농어촌	6.5			
	여유로운 주변환경	도시	6.6	0.5	-6.022	0.000
		농어촌	7.0			
조용한 주변환경	도시	6.2	0.7	-8.491	0.000	
	농어촌	6.9				
자연재해 안전	도시	7.0	-0.2	3.187	0.001	
	농어촌	6.8				
범죄 안전	도시	6.7	0.2	-2.616	0.009	
	농어촌	6.9				
적은 환경오염	도시	6.5	0.2	-1.865	0.062	
	농어촌	6.7				
정돈된 주변환경	도시	6.7	0.0	-0.615	0.539	
	농어촌	6.8				
아름다운 자연 경관	도시	6.6	0.4	-4.845	0.000	
	농어촌	7.0				
경제·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도시	5.0	-0.5	5.137	0.000
		농어촌	4.5			
	일자리 충분성	도시	5.0	-0.7	7.666	0.000
		농어촌	4.3			
	충분한 소득	도시	5.3	-0.6	6.959	0.000
		농어촌	4.7			
	적절한 물가수준	도시	5.1	-0.2	2.139	0.033
		농어촌	4.9			
	일자리 지원	도시	5.4	-0.6	7.646	0.000
		농어촌	4.8			
	로컬푸드 판매	도시	5.5	-0.1	1.141	0.254
		농어촌	5.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도시	5.2	-0.2	2.420	0.016
농어촌		4.9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도시	5.5	-0.3	4.070	0.000	
	농어촌	5.1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도시	-	-	-	-	-
	농어촌	5.1	-	-	-	-

주 1) 도시 n=1,000명, 농어촌 n=2,65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5.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및 ANOVA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읍·면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읍-면)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읍	6.6	-0.1	-0.899	0.369
		면	6.6			
	주관적 건강 인식	읍	6.5	0.1	0.658	0.510
		면	6.5			
	살고 있는 곳에서의 행복감	읍	6.6	0.0	0.039	0.969
		면	6.6			
	마을 발전 전망	읍	6.3	0.3	3.479	0.001
		면	6.0			
시·군 발전 전망	읍	6.4	0.2	2.210	0.027	
	면	6.2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읍	6.4	-0.2	-2.180	0.029
		면	6.6			
	어제의 행복 정도	읍	6.6	0.1	0.951	0.342
		면	6.5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읍	4.8	0.8	7.575	0.000
		면	4.0			
	어제의 우울 정도	읍	3.7	0.8	7.432	0.000
		면	2.9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읍	6.3	-0.1	-0.751	0.453	
	면	6.4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읍	6.3	-0.2	-2.039	0.042	
	면	6.4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읍	6.1	-0.3	-3.348	0.001
		면	6.4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읍	5.9	-0.1	-1.074	0.283
		면	6.0			
	이웃과의 관계	읍	6.4	-0.3	-3.652	0.000
		면	6.7			
	이웃간 도움	읍	6.0	-0.5	-5.097	0.000
		면	6.5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읍	4.9	-0.4	-3.793	0.000	
	면	5.3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읍	6.3	0.1	0.875	0.381	
	면	6.2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읍	4.6	-0.1	-0.928	0.354	
	면	4.8				

주 1) 읍 n=1,250명, 면 n=1,400명.

2) 근심/걱정,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성별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남성-여성)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남성	6.7	0.2	2.233	0.026
		여성	6.5			
	주관적 건강 인식	남성	6.7	0.3	3.199	0.001
		여성	6.4			
	살고 있는 곳에서의 행복감	남성	6.7	0.2	2.846	0.004
		여성	6.5			
마을 발전 전망	남성	6.2	0.1	0.709	0.478	
	여성	6.1				
시·군 발전 전망	남성	6.3	0.0	-0.200	0.842	
	여성	6.3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남성	6.6	0.2	2.445	0.015
		여성	6.4			
	어제의 행복 정도	남성	6.6	0.0	0.257	0.797
		여성	6.6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남성	4.3	-0.2	-1.847	0.065
		여성	4.5			
어제의 우울 정도	남성	3.1	-0.3	-2.782	0.005	
	여성	3.4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남성	6.5	0.3	3.258	0.001	
	여성	6.2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남성	6.5	0.3	3.176	0.002	
	여성	6.2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남성	6.4	0.3	2.872	0.004
		여성	6.1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남성	6.1	0.2	2.046	0.041
		여성	5.9			
	이웃과의 관계	남성	6.7	0.2	2.736	0.006
		여성	6.4			
	이웃간 도움	남성	6.4	0.3	2.711	0.007
		여성	6.2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남성	5.4	0.6	5.800	0.000	
	여성	4.8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남성	6.3	0.1	1.735	0.083	
	여성	6.2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남성	5.0	0.6	5.671	0.000	
	여성	4.4				

주 1) 남성 n=1,293명, 여성 n=1,357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11.867	0.000	40대 이하	50대	0.002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86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07
				50대	40대 이하	0.002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863		50대	0.518
					70대 이상	0.518		60대	0.907
	주관적 건강 인식	4.772	0.003	40대 이하	50대	0.376	60대	40대 이하	0.019
					60대	0.019		50대	0.697
					70대 이상	0.667		70대 이상	0.005
				50대	40대 이하	0.376	70대 이상	40대 이하	0.667
					60대	0.697		50대	0.101
					70대 이상	0.101		60대	0.005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27.058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35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614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35		50대	0.002
					70대 이상	0.002		60대	0.614
	마을 발전 전망	5.155	0.001	40대 이하	50대	0.098	60대	40대 이하	0.001
					60대	0.001		50대	0.614
					70대 이상	0.550		70대 이상	0.275
				50대	40대 이하	0.098	70대 이상	40대 이하	0.550
					60대	0.614		50대	0.910
					70대 이상	0.910		60대	0.275
시·군 발전 전망	6.284	0.000	40대 이하	50대	0.037	60대	40대 이하	0.001	
				60대	0.001		50대	0.754	
				70대 이상	0.042		70대 이상	0.893	
			50대	40대 이하	0.03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42	
				60대	0.754		50대	0.997	
				70대 이상	0.997		60대	0.893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14.404	0.000	40대 이하	50대	0.006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19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98
				50대	40대 이하	0.006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190		50대	0.363
					70대 이상	0.363		60대	0.998
	어제의 행복 정도	4.070	0.007	40대 이하	50대	0.087	60대	40대 이하	0.011
					60대	0.011		50대	0.937
					70대 이상	0.180		70대 이상	0.925
				50대	40대 이하	0.087	70대 이상	40대 이하	0.180
					60대	0.937		50대	1.000
					70대 이상	1.000		60대	0.925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97.30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77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22
					70대 이상	0.022		60대	0.779
	어제의 우울 정도	65.488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3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447
					70대 이상	0.447		60대	0.037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18.508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67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3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670		50대	0.968	
				70대 이상	0.968		60대	0.939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16.06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37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82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370		50대	0.696	
				70대 이상	0.696		60대	0.982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근심/걱정,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80.470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2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79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21		50대	0.003
					70대 이상	0.003		60대	0.797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49.75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10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79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106		50대	0.016
					70대 이상	0.016		60대	0.791
	이웃과의 관계	89.663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2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73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21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73
	이웃간 도움	130.893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4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41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66.056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362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28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362		50대	0.993	
				70대 이상	0.993		60대	0.287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30.43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3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6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30		50대	0.014	
				70대 이상	0.014		60대	0.061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9.326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3	
				60대	0.003		50대	0.832	
				70대 이상	0.999		70대 이상	0.02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999	
				60대	0.832		50대	0.002	
				70대 이상	0.002		60대	0.021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10.94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0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607
	주관적 건강 인식	9.86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113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113
					기타	0.00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07
	살고 있는 곳에서 의 만족감	21.81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85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685
	마을 발전 전망	0.416	0.66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845
					기타	0.638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845
					기타	0.875
				기타	농림어업	0.638
					비농림어업	0.875
시·군 발전 전망	1.349	0.26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289	
				기타	0.388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289	
				기타	0.994	
			기타	농림어업	0.388	
				비농림어업	0.994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	21.80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43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439
	어제의 행복 정도	3.526	0.03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90
					기타	0.039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90
					기타	0.698
				기타	농림어업	0.039
					비농림어업	0.698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76.42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415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415
	어제의 우울 정도	74.23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31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318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23.136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35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35	
원하는 삶의 방식 추구	23.38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3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30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83.17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16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168
	거주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도	45.22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9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92
	이웃과의 관계	93.98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7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78
	이웃간 도움	131.83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9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99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87.07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00	
타지역 주민에 대 한 우호성	27.25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9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92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10.786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176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176	
				기타	0.00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02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전략별 만족도의 읍·면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읍-면)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읍	6.6	1.1	11.909	0.000
		면	5.5			
	의료 서비스 범위	읍	5.8	1.1	10.634	0.000
		면	4.7			
	의료 서비스 수준	읍	5.8	1.0	10.230	0.000
		면	4.8			
	분만의료 서비스	읍	5.0	0.9	8.274	0.000
		면	4.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읍	5.4	0.8	7.779	0.000
		면	4.5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읍	6.0	0.6	7.117	0.000	
	면	5.3				
아동 양육돌봄 지원	읍	5.9	0.7	7.937	0.000	
	면	5.2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읍	5.9	0.4	4.369	0.000	
	면	5.6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읍	6.1	0.0	-0.045	0.964	
	면	6.1				
교육·문화	공교육수준	읍	6.1	0.7	7.409	0.000
		면	5.4			
	방과 후 교육 기회	읍	6.1	0.8	8.678	0.000
		면	5.3			
	평생교육 기회	읍	5.6	0.7	7.183	0.000
		면	5.0			
	문화여가 시설	읍	5.7	1.0	9.989	0.000
		면	4.7			
문화·여가 프로그램	읍	5.6	1.0	10.023	0.000	
	면	4.6				
문화공동체 활동	읍	5.4	0.6	6.272	0.000	
	면	4.8				
지역 향토문화 기회	읍	5.8	0.6	6.638	0.000	
	면	5.2				

주 1) 읍 n=1,250명, 면 n=1,40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읍-면)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면	5.9	0.6	5.662	0.000
			5.3			
	통신시설	면	7.5	0.5	6.560	0.000
			7.0			
	생활 인프라	면	7.1	0.5	6.297	0.000
			6.5			
	난방 인프라	면	6.8	0.9	10.275	0.000
			5.9			
	생활 서비스	면	6.5	1.2	12.586	0.000
			5.3			
	식자재 구입	면	6.9	1.4	14.352	0.000
			5.6			
	다양한 외식 장소	면	6.6	1.3	13.278	0.000
			5.4			
	주택 상태	면	6.7	0.4	4.545	0.000
			6.3			
	교통안전	면	6.6	0.2	1.900	0.058
			6.5			
여유로운 주변환경	면	7.0	0.0	-0.138	0.890	
		7.0				
조용한 주변환경	면	6.8	-0.1	-1.670	0.095	
		6.9				
자연재해 안전	면	6.9	0.3	3.178	0.002	
		6.7				
범죄 안전	면	7.0	0.1	0.904	0.366	
		6.9				
적은 환경오염	면	6.7	0.1	1.604	0.109	
		6.6				
정돈된 주변환경	면	6.9	0.2	2.325	0.020	
		6.7				
아름다운 자연 경관	면	7.1	0.3	3.431	0.001	
		6.8				
경제·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면	4.7	0.3	3.108	0.002
			4.4			
	일자리 충분성	면	4.5	0.4	3.967	0.000
			4.2			
	충분한 소득	면	4.9	0.4	4.834	0.000
			4.5			
	적절한 물가수준	면	5.1	0.3	3.445	0.001
			4.8			
	일자리 지원	면	4.9	0.3	3.790	0.000
			4.6			
	로컬푸드 판매	면	5.7	0.6	6.506	0.000
5.1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면	5.2	0.5	5.033	0.000	
		4.7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면	5.4	0.5	5.832	0.000	
		4.9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면	5.2	0.3	3.114	0.002	
		4.9				

주 1) 읍 n=1,250명, 면 n=1,40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전략별 만족도의 성별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남성-여성)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남성	6.1	0.2	1.691	0.091
		여성	5.9			
	의료 서비스 범위	남성	5.3	0.2	1.727	0.084
		여성	5.1			
	의료 서비스 수준	남성	5.3	0.1	0.951	0.342
		여성	5.2			
	분만의료 서비스	남성	4.6	0.2	1.948	0.051
		여성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남성	5.0	0.2	1.572	0.116
		여성	4.9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남성	5.7	0.1	0.685	0.494	
	여성	5.6				
아동 양육보호 지원	남성	5.6	0.1	0.601	0.548	
	여성	5.5				
취약계층 복지 지원	남성	5.8	0.1	1.339	0.181	
	여성	5.7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남성	6.1	0.2	1.219	0.223	
	여성	6.0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남성	5.7	0.0	0.532	0.595
		여성	5.7			
	방과 후 교육 기회	남성	5.6	-0.1	-0.796	0.426
		여성	5.7			
	평생교육 기회	남성	5.2	-0.1	-0.942	0.346
		여성	5.3			
	문화·여가 시설	남성	5.1	-0.1	-1.010	0.312
		여성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남성	5.0	-0.1	-1.470	0.142
		여성	5.1			
문화 공동체 활동	남성	5.1	0.0	0.188	0.851	
	여성	5.1				
지역 향토문화 기회	남성	5.5	-0.1	-0.873	0.383	
	여성	5.6				

주 1) 남성 n=1,293명, 여성 n=1,357명.

2) '농어작업 안전성' 남성 n=462명, 여성 n=366명.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남성-여성)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남성	5.7	0.2	1.773	0.076
		여성	5.5			
	통신시설	남성	7.2	0.0	-0.229	0.819
		여성	7.2			
	생활 인프라	남성	6.8	0.1	0.696	0.486
		여성	6.8			
	난방 인프라	남성	6.2	-0.2	-2.105	0.035
		여성	6.4			
	생활 서비스	남성	5.8	0.0	0.231	0.817
		여성	5.8			
	식자재 구입	남성	6.2	0.1	0.587	0.557
		여성	6.2			
	다양한 외식 장소	남성	5.9	-0.1	-0.645	0.519
		여성	6.0			
	주택 상태	남성	6.5	0.0	-0.107	0.915
		여성	6.5			
	교통안전	남성	6.5	0.0	0.335	0.738
		여성	6.5			
여유로운 주변환경	남성	7.1	0.1	0.848	0.397	
	여성	7.0				
조용한 주변환경	남성	7.0	0.2	1.925	0.054	
	여성	6.8				
자연재해 안전	남성	6.8	0.1	0.838	0.402	
	여성	6.8				
범죄 안전	남성	7.0	0.1	1.775	0.076	
	여성	6.9				
적은 환경오염	남성	6.8	0.2	1.831	0.067	
	여성	6.6				
정돈된 주변환경	남성	6.7	0.0	-0.390	0.697	
	여성	6.8				
아름다운 자연 경관	남성	6.9	0.0	-0.323	0.747	
	여성	7.0				
경제·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남성	4.6	0.2	1.991	0.047
		여성	4.4			
	일자리 충분성	남성	4.5	0.2	2.451	0.014
		여성	4.2			
	충분한 소득	남성	4.8	0.2	1.797	0.072
		여성	4.6			
	적절한 물가수준	남성	5.0	0.2	2.486	0.013
		여성	4.8			
	일자리 지원	남성	4.9	0.2	2.144	0.032
		여성	4.7			
	로컬푸드 판매	남성	5.4	0.1	0.779	0.436
여성		5.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남성	5.1	0.3	2.759	0.006	
	여성	4.8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남성	5.2	0.1	1.529	0.126	
	여성	5.1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남성	5.2	0.2	2.548	0.011	
	여성	5.0				

주 1) 남성 n=1,293명, 여성 n=1,357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의료 서비스 접근성	11.950	0.000	40대 이하	50대	0.359	60대	40대 이하	1.000
				60대	1.000		50대	0.43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359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434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의료 서비스 범위	5.697	0.001	40대 이하	50대	0.477	60대	40대 이하	0.960
				60대	0.960		50대	0.835
				70대 이상	0.008		70대 이상	0.006
			50대	40대 이하	0.47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8
				60대	0.835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6
의료 서비스 수준	7.254	0.000	40대 이하	50대	0.986	60대	40대 이하	0.905
				60대	0.905		50대	0.81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4
			50대	40대 이하	0.986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813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4
분만의료 서비스	9.914	0.000	40대 이하	50대	0.995	60대	40대 이하	0.345
				60대	0.345		50대	0.35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6
			50대	40대 이하	0.995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354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6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0.675	0.567	40대 이하	50대	0.531	60대	40대 이하	1.000
				60대	1.000		50대	0.661
				70대 이상	0.998		70대 이상	0.999
			50대	40대 이하	0.531	70대 이상	40대 이하	0.998
				60대	0.661		50대	0.801
				70대 이상	0.801		60대	0.999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6.953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003
				60대	0.003		50대	0.971
				70대 이상	0.055		70대 이상	0.974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55
				60대	0.971		50대	0.845
				70대 이상	0.845		60대	0.974
아동 양육보호 지원	3.053	0.027	40대 이하	50대	0.133	60대	40대 이하	0.785
				60대	0.785		50대	0.687
				70대 이상	0.588		70대 이상	0.239
			50대	40대 이하	0.133	70대 이상	40대 이하	0.588
				60대	0.687		50대	0.023
				70대 이상	0.023		60대	0.239
취약계층 복지 지원	16.22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9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88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91		50대	1.000
				70대 이상	1.000		60대	0.988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0.625	0.599	40대 이하	50대	0.996	60대	40대 이하	0.853
				60대	0.853		50대	0.901
				70대 이상	0.684		70대 이상	0.970
			50대	40대 이하	0.996	70대 이상	40대 이하	0.684
				60대	0.901		50대	0.712
				70대 이상	0.712		60대	0.970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교육 수준	8.510	0.000	40대 이하	50대	0.997	60대	40대 이하	0.984
				60대	0.984		50대	0.96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99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63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방과 후 교육 기회	12.088	0.000	40대 이하	50대	0.962	60대	40대 이하	0.374
				60대	0.374		50대	0.778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962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778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평생교육 기회	2.958	0.031	40대 이하	50대	0.639	60대	40대 이하	0.984
				60대	0.984		50대	0.531
				70대 이상	0.110		70대 이상	0.301
			50대	40대 이하	0.639	70대 이상	40대 이하	0.110
				60대	0.531		50대	0.018
				70대 이상	0.018		60대	0.301
문화·여가 시설	14.213	0.000	40대 이하	50대	0.912	60대	40대 이하	0.042
				60대	0.042		50대	0.33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2
			50대	40대 이하	0.912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331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2
문화·여가 프로그램	17.897	0.000	40대 이하	50대	0.950	60대	40대 이하	0.042
				60대	0.042		50대	0.278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95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278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문화 공동체 활동	8.023	0.000	40대 이하	50대	0.235	60대	40대 이하	0.944
				60대	0.944		50대	0.639
				70대 이상	0.001		70대 이상	0.001
			50대	40대 이하	0.235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1
				60대	0.639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1
지역 향토문화 기회	2.403	0.066	40대 이하	50대	0.997	60대	40대 이하	0.696
				60대	0.696		50대	0.679
				70대 이상	0.074		70대 이상	0.554
			50대	40대 이하	0.99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74
				60대	0.679		50대	0.097
				70대 이상	0.097		60대	0.554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대중교통	14.397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70		
				70대 이상	0.012		70대 이상	0.31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12	50대	0.576
				60대	0.970		60대	0.317		
				70대 이상	0.576					
통신시설	3.433	0.016	40대 이하	50대	0.048	60대	40대 이하	0.060		
				60대	0.060		50대	0.999		
				70대 이상	0.234		70대 이상	0.993		
			50대	40대 이하	0.048	70대 이상	40대 이하	0.234	50대	0.980
				60대	0.999		60대	0.993		
				70대 이상	0.980					
생활 인프라	17.446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3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3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156
				60대	0.930		60대	0.037		
				70대 이상	0.156					
난방 인프라	0.081	0.970	40대 이하	50대	0.992	60대	40대 이하	0.985		
				60대	0.985		50대	1.000		
				70대 이상	0.974		70대 이상	1.000		
			50대	40대 이하	0.992	70대 이상	40대 이하	0.974	50대	0.999
				60대	1.000		60대	1.000		
				70대 이상	0.999					
생활 서비스	11.522	0.000	40대 이하	50대	0.997	60대	40대 이하	0.083		
				60대	0.083		50대	0.118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15		
			50대	40대 이하	0.99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0
				60대	0.118		60대	0.015		
				70대 이상	0.000					
식자재 구입	25.812	0.000	40대 이하	50대	0.857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1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85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0
				60대	0.014		60대	0.000		
				70대 이상	0.000					
다양한 외식장소	20.002	0.000	40대 이하	50대	0.938	60대	40대 이하	0.001		
				60대	0.001		50대	0.03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3		
			50대	40대 이하	0.938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0
				60대	0.030		60대	0.003		
				70대 이상	0.000					
주택상태	6.65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10		
				60대	0.010		50대	0.798		
				70대 이상	0.315		70대 이상	0.798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315	50대	0.311
				60대	0.798		60대	0.798		
				70대 이상	0.311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교통안전	32.28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5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42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3
				60대	0.754		60대	0.042		
				70대 이상	0.003					
여유로운 주변환경	17.70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95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204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319
				60대	0.995		60대	0.204		
				70대 이상	0.319					
조용한 주변환경	37.627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3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0
				60대	0.736		60대	0.001		
				70대 이상	0.000					
자연재해 안전	28.73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47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40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10
				60대	0.947		60대	0.040		
				70대 이상	0.010					
범죄 안전	35.437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1.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02
				60대	1.000		60대	0.001		
				70대 이상	0.002					
적은 환경오염	28.945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1.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1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26
				60대	1.000		60대	0.019		
				70대 이상	0.026					
정돈된 주변환경	25.063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80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204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031
				60대	0.804		60대	0.204		
				70대 이상	0.031					
아름다운 자연·경관	14.62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6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355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50대	0.645
				60대	0.961		60대	0.355		
				70대 이상	0.645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일자리 용이성	9.792	0.000	40대 이하	50대	0.306	60대	40대 이하	1.000
				60대	1.000		50대	0.437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306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437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일자리 충분성	9.526	0.000	40대 이하	50대	0.389	60대	40대 이하	0.996
				60대	0.996		50대	0.629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389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629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충분한 소득	14.240	0.000	40대 이하	50대	0.988	60대	40대 이하	0.114
				60대	0.114		50대	0.362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1
			50대	40대 이하	0.988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362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1
물가 수준 적절성	6.004	0.000	40대 이하	50대	1.000	60대	40대 이하	1.000
				60대	1.000		50대	0.999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3
			50대	40대 이하	1.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99		50대	0.002
				70대 이상	0.002		60대	0.003
일자리 지원	11.561	0.000	40대 이하	50대	0.629	60대	40대 이하	0.680
				60대	0.680		50대	0.18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1
			50대	40대 이하	0.629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184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1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로컬푸드 판매	19.464	0.000	40대 이하	50대	0.421	60대	40대 이하	0.348
				60대	0.348		50대	1.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42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1.00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853	0.001	40대 이하	50대	1.000	60대	40대 이하	0.410
				60대	0.410		50대	0.59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86
			50대	40대 이하	1.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596		50대	0.003
				70대 이상	0.003		60대	0.086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4.843	0.002	40대 이하	50대	0.920	60대	40대 이하	0.766
				60대	0.766		50대	0.502
				70대 이상	0.004		70대 이상	0.105
			50대	40대 이하	0.92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4
				60대	0.502		50대	0.003
				70대 이상	0.003		60대	0.105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3.482	0.015	40대 이하	50대	0.179	60대	40대 이하	0.831
				60대	0.831		50대	0.718
				70대 이상	0.326		70대 이상	0.124
			50대	40대 이하	0.179	70대 이상	40대 이하	0.326
				60대	0.718		50대	0.010
				70대 이상	0.010		60대	0.124

주 1) 40대 이하 n=1,106명, 50대 n=548명, 60대 n=591명, 70대 이상 n=405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보건·복지 전략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분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의료 서비스 접근성	26.44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5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57
의료 서비스 범위	20.30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0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02
의료 서비스 수준	19.68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6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62
분만의료 서비스	24.55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57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579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17.88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8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81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분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0.874	0.418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959
				기타	0.417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959
				기타	0.501
			기타	농림어업	0.417
				비농림어업	0.501
아동 양육돌봄 지원	7.65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8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8
				기타	0.377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377
취약계층 복지 지원	5.369	0.005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3
				기타	0.203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3
				기타	0.574
			기타	농림어업	0.203
				비농림어업	0.574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3)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만 분석하므로, 직업군에 따른 분산분석에서 제외.

〈교육·문화 전략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교육수준	15.77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8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82
방과 후 교육 기회	26.39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6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69
평생교육 기회	16.55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72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72
문화·여가 시설	42.52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35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35
문화·여가 프로그램	36.79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5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51
문화 공동체 활동	7.75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1
				기타	0.01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1
				기타	0.982
			기타	농림어업	0.012
				비농림어업	0.982
지역 향토문화 기회	10.81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1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1
				기타	0.27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271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정주기반 전략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분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대중교통	0.522	0.593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850
				기타	0.564
				농림어업	0.850
			비농림어업	기타	0.805
				농림어업	0.564
				비농림어업	0.805
통신시설	4.678	0.009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47
				기타	0.858
				농림어업	0.047
			비농림어업	기타	0.024
				농림어업	0.858
				비농림어업	0.024
생활 인프라	3.611	0.027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21
				기타	0.537
				농림어업	0.021
			비농림어업	기타	0.468
				농림어업	0.537
				비농림어업	0.468
난방 인프라	6.832	0.001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17
				기타	0.001
				농림어업	0.017
			비농림어업	기타	0.345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345
생활 서비스	27.23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기타	0.985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85
식자재 구입	41.03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기타	0.908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08
다양한 외식 장소	37.40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기타	0.916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16
주택 상태	1.355	0.258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227
				기타	0.682
				농림어업	0.227
			비농림어업	기타	0.856
				농림어업	0.682
				비농림어업	0.856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교통안전	20.75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50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508
여유로운 주변환경	23.55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7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79
조용한 주변환경	39.166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9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90
자연재해 안전	11.78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74
			기타	농림어업	0.002
				비농림어업	0.874
범죄 안전	30.19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5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51
적은 환경 오염	18.63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43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43
정돈된 주변환경	21.81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1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19
아름다운 자연·경관	10.71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1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47
			기타	농림어업	0.012
				비농림어업	0.647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경제·일자리 전략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일자리 용이성	24.17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22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0.224
				비농림어업	0.000
일자리 충분성	15.67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54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0.544
				비농림어업	0.000
충분한 소득	18.46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93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0.932
				비농림어업	0.000
적절한 물가 수준	2.669	0.069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573
				기타	0.38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573
				기타	0.056
			기타	농림어업	0.384
				비농림어업	0.056
일자리 지원	13.42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1.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1.000
				비농림어업	0.000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분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로컬푸드 판매	11.40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218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55
			기타	농림어업	0.218
				비농림어업	0.055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9.10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26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55
			기타	농림어업	0.026
				비농림어업	0.655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3.072	0.046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37
				기타	0.32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37
				기타	0.826
			기타	농림어업	0.320
				비농림어업	0.826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2.710	0.067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319
				기타	0.648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319
				기타	0.070
			기타	농림어업	0.648
				비농림어업	0.070

주 1) 농림어업 n=828명, 비농림어업 n=1,282명, 주부·학생·퇴직·기타 n=540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참고문헌

- 김민석.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 김태완.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완.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3).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민경찬, 김민석, 유서영.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민주, 손경민.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3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OECD. (2015).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7.29.).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가가호호 이동장터’ 추진 하여 삶의 질 높인다.”
- 법제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main.d>